



많은 결실 거둔 戊子年 보내며...



▲ 3월 21일 정기총회·제10회 관악대상 시상



▲ 7월 6일 제5회 동문 바둑대회



▲ 9월 8일 제4회 동문 골프대회



▲ 8월 27일 장학금 수여식



▲ 10월 19일 제30회 홈커밍데이 겸 가족 친목대회

2009년 己丑年 신년 교례회

새해를 준비하는 신년 교례회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09년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 회 비 : 없음
- 문 의 : 02)702-2233

※ 한정된 좌석과 식사 준비로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관악출추

우리 서울대는 이제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다. 지난 정권에서 서울대가 음으로 양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가면서 어떻게든 서울대를 끌어내리려는 시도와 음모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대 폐지론까지 등장할 정도였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울대가 자신감을 갖고 개구리처럼 한번 뛰어오를 때가 되었다. 우리 서울대인들은 금년 한 해만 해도 그러한 저력을 보여줬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지난번 서울대 'Vision 2025'에서 오는 2025년까지 서울대를 세계 10위 권에 올려놓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발표했

다. 얼핏 듣기에 꿈같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대가 현재 세계 50위(2008년 영국 더 타임즈 평가)에 랭크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우리가 맘먹기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 보여진다. 모교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금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이미 1천8백억원이란 거액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노벨상의 꿈

모교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온 총동창회에서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지상 19층 지하 6층의 장학빌딩을 신축하고 있다. 이 건물 역시 많은 졸업생들의 적극 참여로 이미 예상했던 공사비 3백억원을 넘겼다는 소식이다. 새삼 동창회의 힘을 느끼게 된다. 이 기회에 거액

(50억원)을 출연한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5천5백여 기여동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장학빌딩이 예정대로 2010년 완성되면 회관운영 수익을 통해 모교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동창회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서울대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대학이지만 아직 노벨상 하나 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부끄럽다. 이웃 일본이 금년에만 3명, 통틀어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내는 사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반드시 우리 서울대가 최초의 깃발을 꽂아야 할 것이다. 만약 다른 대학에서 최초의 노벨상(노벨평화상은 빼고)이 나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우리 서울대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최고의 대학이라는 영광을 누리려면 모교는 물론, 30만 동문들도 각자 자기 몫을 해야 할 것이다. (丘月煥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스위스 철학 에세이스트이자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悲觀主義者의 역설’을 이야기한다. 비관주의는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쇼펜하우어 같은 비관론자들은 고통에 빠져 있다고 느낀다면 아예 뒤집어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불행하다고 느낄 때 인생의 원래 계획에는 행복이란 게 절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큰 위안이 된다는 식이다.

‘(사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행복이란 게 살아생전에 꼭 손에 넣어야 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가정과 그에 따른 행동이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세상을 고통으로 인식하면 많은 것들이 보인다. 막연한, 행복한, 기만적인 이미지들이 주는 환상이 벗겨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을 지식으로 승화시키라”(알랭 드 보통 ‘짧은 베르테르의 기쁨’ 중).

1996년 작고한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는 평생 ‘고통’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성찰했다. 여러 차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침묵’ ‘깊은 강’ 등의 소설을 통해 신과 인간, 구원의 문제를 파고들었다.

작가는 실제 삶의 많은 부분을 病魔와 싸우며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다. 3년이나 꼬박 누워지내야 했던 적도

있었다. 유명 작가가 되고 싶다는 소원으로 마음이 가득했던 시절,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병마는 큰 절망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생활의 손실로만 여겼던 그 시간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커다란 이익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수술로 일곱 개의 늑골을 잃었고 한쪽 폐가 잘려 나갔지만 실제 얻은 것은 늑골이나 폐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즉 고통이라는 부정적 요인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쓸모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긍정적인 실마리를 찾고 그 가능성을 발견해 구체화시킬 수만 있다면 과거의 손해도 언젠가는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절이다. ‘고통을 지식으로 승화시키는 일’은 뜨거운 고통을 차가운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뜻일 것이다. 요즘 같은 때에는 生老病死의 애환과 철학적 지혜에 버무려진 위대한 시와 소설 같은 고전들을 읽는 것도 고통을 지식으로 다스리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힘’이다.

어려운 시절의 ‘인문학의 힘’

許文明

동아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좋은 일들

沈甫宣(사회88-95)

시인·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내가 오늘 한 일 중 좋은 일 하나는
매미 한 마리가 땅바닥에 배를 뒤집은 채
느리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준 일
죽은 매미를 손에 쥐고 나무에 기대 땀땀 울며
잠깐 그것의 후생이 되어준 일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것 또한 좋은 일 중의 하나
태양으로부터 드리워진 부드러운 빛의 붓질이
내 눈동자를 어루만질 때
외곽에 펼쳐진 해안의 윤곽이 또렷해진다
그때 나는 좋았던 일들만을 짐짓 기억하며
두터운 밤공기와 단단한 대지의 틈새로
해진 구두코를 슬쩍 들이미는 것이다
오늘의 좋은 일들에 비추어볼 때
어쩌면 나는 생각보다 조금 위대한 사람
나의 심장이 구석구석의 실정맥 속으로
가룩한 용기들을 알알이 흘려보내는 것 같은 착란
그러나 이 지상에 명료한 그림자는 없으니
나는 이제 나를 고백하는 일에 보다 절제하려다
발 아래서 쿨트처럼 알록달록 조각조각
교차하며 이어지는 상념의 나날들
언제나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
언젠가 운명이 흰 수염고래처럼 흘러오겠지

동문칼럼

지난 10월 서울대학교에 ‘공공리더십센터’가 해립했다. 기초교육원 산하기관인데 언젠가는 독립기관이 될 예정이다. 현재 기초교육원에는 물론 대학생활문화원에도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새삼 리더십 교육기관을 만든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훌륭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이 각 분야에서 정진하며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도와 국가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했느냐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물론 많은 졸업생들이 역량을 발휘해 사회를 위해 기여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또한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아픔답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들도 얼마나 떳떳했는지 자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리더는 남과 사회를 위해 돕



金光雄

(행정58-62)

모교 행대원 명예교수

시사IN 발행인

틀이었던 ‘지배의 리비도’에서 벗어나 ‘감성과 지성의 리비도’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인지문명’시대를 사는 기본 자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센터의 기본 철학이 ‘권력은 봉사(AB OFFICIO, AD HONESTATEM)’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가 꾸민다(AU-DENTIS FORTUANA IUVAT)’라는 철학도 주변에 깔려있다. 이를 위해 교육의 틀을 짰는데 그 하나가 기억과 이성의 축에 더해 상상의 축을 강조한다는 점이고, 동시에 분석과 종합의 세계, 창조의 세계, 그리고 실천의 세계를 두루 섭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방점을 찍고자 하는 것은 이들 세 세계가 겹치는 합집합에 ‘리듬’이 자리한다는 것이고, 또한 리더십 훈련은 무엇보다도 몸으로 한다는 점이다. 생각과 상상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탄탄한 이론과 논리 훈련을 받고 몸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시대의 성취 일반도라는

공공리더십센터 발족에 즈음하여

는 사람인데 통상은 권좌에 앉아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고 인식한다. 그런 인재들이 실상은 리더십 훈련을 받아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자리에 앉게 되고 그 때부터 리더 구실을 하게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공공리더십센터가 겨냥하는 것은 21세기 창조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려면, 우선 과학기술의 발달이 열어 놓은 미래사회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스스로가 창의적이지 않으면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지난 3백년 동안 우리 사고의

틀에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리더십은 ‘공유하는 리더십(Shared Leadership)’이고 ‘팀 리더십’이니까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끝으로 타임지에도 보도된 대로 앞으로 CEO나 리더는 없어지는 직업군에 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챔버 오케스트라인 ‘오르페우스’에 지휘자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너 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리더가 될 날을 기약하면서 공공리더십센터에 리더십 인덱스와 역사적 인물의 이름 따라 펠로우(예를 들어 백범 김구 펠로우 등)도 만들 예정이니 많은 비판과 성원과 후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龍,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동창회 편집회의서 ‘모교 개교 원년 찾기’ 논의

“세계 10위권 도약에 校史가 걸림돌되면 안돼”

전문TF 구성 등 언론계 동문 공감 이뤄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단과대학(원) 동창회장과 모교 교수들을 초청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데 이어 지난 11월 11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매화홀에서 동창회 운영위원회 겸 편집회의를 개최해 본보 논설위원들로부터 개교 원년 찾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대가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열심히 다지고 있는 이 때에 학교의 역사가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면 아무리 훌륭한 연구업적을 이뤄도 소용이 없다”며 “서울대가 마음 놓고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그동안 정신없이 지내오다 보니 우리의 校史를 제대로, 올바르게 따지지 못



한 것 같다”며 “모교가 세계 초일류 대학 진입을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차제에, 恒産者에게 恒心이라고 할까 우리의 전통성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언론계 동문들을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교 국사학과 李泰鎭교수가 모교 단과대학과 국내외 주요 대학의 개교 원년 설정 현황 비교, 고종시대 관립고등교육기관과 경

성제국대학 설립 배경 등을 파워포인트로 발표했다. 李교수는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동안 ‘개교 원년 찾기’에 필요한 모든 역사적 자료를 정리해 자료집을 발간하고 논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李교수는 개교 원년을 잡는 4가지 유형에 대해 “A형은 작은 기원을 원년으로 잡고 점진적으로 확대한 경우이고, B형은 작은 기원을 원년으로 잡되 여러 기관이 합병된 형태이며, C형은 작은 기원은 前史로 처리하고 여러 기관이 합병된 것을 원년으로 삼고 있고, D형은 개교 원년을 종합대학 규모로 계획해서 작은 규모들이 모아진 후 큰 규모를 원년으로 보는 경우”라고 말했다.

또 “A, B형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펼치는 원년 찾기는 B유형을 근거로 두고있으며, 현재 모교는 작은기관을 전사로 처리하고 기관들이 통합돼 출발하는 해를 원년으로 삼는 C유형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성제국대학 설립배경을 설명하면서 “동송동에 위치해 있던 경성제대 캠퍼스는 원래 황실 소유지였으나 총독부가 국유로 변경해 둔 것이기 때문에 경성제대는 황실 소유였던 의학부와 법문학부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호에 ‘서울대 개교 원년은 1895년’이라고 기고한 李相

赫부회장은 “어디를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경성제국대학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중요하다”며 “이는 미군정 법령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서울대에 흡수된 학교와 그 소속기관의 재산, 설비, 문서, 자료 및 인원은 국립서울대에 이관되기 때문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비롯한 10개 학교는 이미 이관됐고, 광복 후 미군정청이 경성제대의 예과를 폐지하고 경성대학으로 개칭함으로써 서울대는 새로 개편된 경성대학을 흡수한 것이므로 실제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1895년 3월 관립고등교육기관 중 최초로 설립된 법관양성소를 개교 원년으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경성법학전문학교 명부를 보면 법관양성소까지 포함한 졸업생의 이름과 직함이 모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본보에 처음으로 개교 원년에 대한 글을 기고한 모교 曹國교수는 “모교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역사적인 자료에서 뚜렷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경성제대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대 동문이라면 우리의 뿌리와 역사를 제대로 알고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尹在錫논설위원은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가 되면 논란이 될 수 있

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언론을 상대로 어떠한 콘텐츠를 제공해 논리적으로 주장 또는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宋鎭赫논설위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이 문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국가적인 사안”이라며 “대중이 더 많이 공감하고 어떤 비판에도 잘 대응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李泰鎭교수 역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주시면 작업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성제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교 원년 설정 시기와 경성제국대학 문제에 대해 許英燮논설위원은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 출범한 것을 원년으로 삼는다면 법관양성소가 무난한 것 같다”고 언급한 뒤 “경성제대 문제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입장을 바꾸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丘月煥논설위원도 “서울대의 전신이 경성제국대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蔡耕玉논설위원은 “이번에 개교 원년을 바로 잡게 되면 다시는 반복할 수 없다”며 “어디를 원년으로 잡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炯均논설위원은 충분한 검토와 자료가 마련된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으며 “문제가 생기면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준 뒤 필요한 코멘트만 하면 되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安國正논설위원은 “왜 지금 시점에서 원년 바로 잡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1등 대학이 역사까지 1등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경성제대를 편입시키는 문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본회 林光洙회장, 동아제약 姜信浩회장, 일동제약 李金器회장, 모교 발전기금 등이 많은 협찬을 했다. 〈表〉



관악회 106차 이사회

임기 만료 이사 10명 재선임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20층 무궁화실에서 제106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 선임과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임원 선임을 통해 임기가 만료된 洪性大상임이사, 孫一根·明泰鉉·李禮植·金炯珠·安聖哲·李炯均·張世一·朴明潤·金秉順이사, 朴英俊감사를 만장일치로 재선임했으며 신임 이사로 모교 발전기금 南益鉉상임이사를 선임했다.

한편 鄭哲圭이사가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함에 따라 1명의 새로운 이사를 곧 선임키로 했다. 관악회는 15명의 이사(임기 4년)와 2명의 감사(임기 2년)로 구성된다.

이날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자료에 따르면 관악회는 내년도 장학금 지원 사업에 5억원, 장학빌딩 건립 사업에 1백17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매회계년도 개시 전 다음해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이번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모임에 林光洙이사장, 洪性大상임이사, 孫一根·明泰鉉·鄭哲圭·申明珪·李炯均·朴明潤·金秉順·南益鉉이사, 朴英俊감사 등이 참석했으며 金炯珠·李吉女·李禮植·安聖哲·張世一 이사, 金一燮감사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南〉

2009년 포켓용 DIARY·탁상용 달력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와 ‘탁상용 캘린더’를 준비했습니다.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께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 己丑年의 설계와 구상을 새롭게 변신한 동창회 DIARY에 기재해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동문기고

변호사의 인구론

1798년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는 ‘인구론’이라는 책에서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 상태가 계속 되면 빈곤이 구조화돼 사회의 하층계급부터 기아가 발생, 끝내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맬서스의 ‘우울한 예견’은 대부분의 나라와 지역에서 빚나갔다. 그런데 불행히도 맬서스의 우울한 예언이 오늘날의 우리 변호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2000년 개업변호사 수는 4천2백28명이었다. 그런데 2008년 10월 16일 현재 개업변호사 수는 8천9백17명으로 2배를 훨씬 넘었다. 최근 8년간 늘어난 수가 그 이전 수십년 동안의 개업변호사 수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 1인당 평균 본안 사건 경유 건수는 2002년 38건에서 2007년 32건으로 줄었다. 식량은 줄고 인구는 늘어난 셈이다. 과연 맬서스의 우울한 예견대로 최근 몇 년부터 우리 주변에는 생활비도 못 버는 빈곤층 변호사가 나타나고 있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후 바로 개업한 젊은 변호사들의 대다수가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는 중견 변호사들과 소형 로펌 및 공동사무실의 변호사들까지도 상당수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2012년부터는 매년 약 1천5백명 이상의 로스쿨 변호사가 대량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반면 향후 수년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는 호전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업계의 빈곤은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끝내는 변호사 사회의 상층부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조차도 적자를 걱정해야 할 지도 모른다. 참으로 우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연로한 변호사들은 괴테처럼 ‘내가 젊은 변호사가 아닌 것을 신에게 감사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金大中·盧武鉉정부하에서 변호사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나아가 미국식 로스쿨 제도까지 도입한 것은 미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에 비하면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너무 많아서 변호사들이 특권층 내지 부유층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숫자를 대폭 늘려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의 직업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변호사의 직역인 1차 법률시장과 세무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수많은 인접 직종의 직역인 2차 법률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검찰수사 업무, 법원의 송무 업무 그리고 국제거래 업무가 변호사의 직역 즉 1차 법률시장이고 나머지 법률업무는 타 직종의 직역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직역과 중첩되는 직종이 거의 없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가로막는 제약이 없으므로 매년 수만명의 변호사가 늘어나도 변호사의 일거리 부족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는 미국에

서도 변호사의 과잉공급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경제가 망한다는 변호사 망국론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미국과는 달리 변호사의 직역이 매우 제한돼 있어 변호사 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변호사의 수입이 줄어드는 소위 비탄력 구조이다. 문제는 변호사의 빈곤이 우리 사회에

를 늘려줘야 한다. 그런데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로스쿨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변호사의 일거리 확대뿐이다. 문제는 어떻게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할 것인가이다.

직역확대의 첫 번째 길은 현재의 변호사 시장, 즉 1차 법률시장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강제화 내지 제도화하고 나아가 재판의 증거조사 절차에서 변호사(소송대리인)의 증거조사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관치 사법 및 수사관행과 제도를 바꿔 변호사의 활동 공간을 넓힘으로써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관 및 검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 사법절차가 신속해지고 국가예산도 줄어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다. 일종의 사법개선이다.

둘째 방법은 새로운 법률시장, 예컨대 신용조사, 사설탐정, 컨설팅 업무, 로비 업무, 입법보좌관, 파산관재인 등 미국에서는 당연히 변호사 직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변호사들이 직역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은 분야를 변호사의 직역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변호사 직역의 확대는 법조계의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변호사들이 삭발데모나 촛불집회 같은 단체행동을 하는 재앙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만일 변호사들이 그렇게 나간다면 이는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돼 변호사 직업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변호사 직역의 확대는 변호사들이 합심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사법부, 검찰, 국회 및 언론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직역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해 지지를 얻는 법치주의 방법으로 실행해야 한다.



金平祐
(법학3-67)
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까지의 영향이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는 최상위의 지식층일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으로 발언권이 강한 계층이다. 만일 젊은 변호사의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된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분쟁들까지 변호사들이 법정 송사로 끌고 가 분쟁을 오히려 조장, 확대하는 부조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에는 몇 년전 의약분업 파동 때 봤던 젊은 의사들의 삭발투쟁이나 최근 쇠고기 파동 때 나타난 실직 젊은이들의 촛불시위 같은 집단행동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변호사들의 삭발투쟁, 촛불시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러한 재앙을 막으려면 변호사의 숫자 증가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변호사에게 일거리

제11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www.snua.or.kr)
-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09년 1월 31일
 -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6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 · 팩스 : 703-0755)
-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9년 3월 20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 ·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제6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는 제6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은 관악언론인회와 서울대총동창회가 한국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서울대 출신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추천대상 :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외의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 언론사 경영인, 언론 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 2. 추 천 인 : 1)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2) 언론단체의 대표
3) 대학 언론학 학과장, 대학원장
- 3. 심사대상 :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음.
- 4. 제출서류
 - 1) 추천서 :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명기한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snu1969@empal.com)로 접수시켜야 함.
 - 2) 공적 자료 : 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가능.
- 5. 추천기한 : 2009년 1월 31일
- 6. 수상자 발표 : 2월 중순
- 7. 시 상 식 : 2월 정기총회
- 8. 문 의 : 02)886-2219, snua1969@empal.com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미술대학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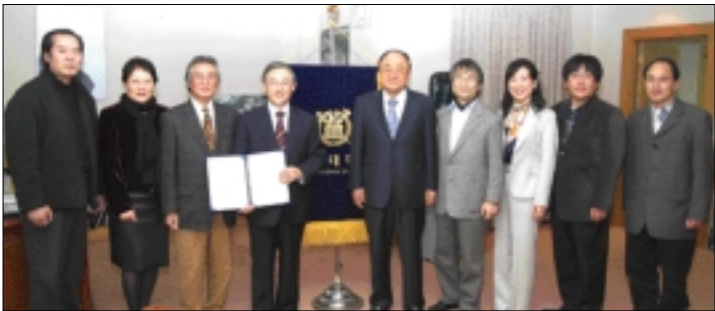
본회·모교에 6천3백만원 지원

미술대학동창회(회장 金鳳九)가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과 모교 발전기금으로 6천3백40만원을 출연했다.

지난 11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본부 총장실에서 金鳳九회장이 본회 林光洙회장에게 3천1백20만원, 모교 李長茂총장에게 3천2백

2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출연한 기금은 지난 10월 25일~11월 1일 열린 총동문전을 통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서 3백50여 동문이 6백여 작품을 출품해 총 2억7천1백3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중 1억7천6백70만원은 작가와 행사비용 등으로 사



좌로부터 具本茂·李種福·金鳳九·李長茂·林光洙·崔仁壽·金美惠·金鍾璇·申夏淳동문

용했으며 3천1백10만원을 미대동창회 기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본회와 모교에 출연한 것이다. 金鳳九회장은 “2년전 전시회와

는 결과면에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동문간 결속력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林光洙회장은 “다음 행사에는 지난 2년전 전시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미술작품을 보급한다는 마음으로 ‘1백만원전’ 등 균일가 전시회로 기획해 홍보를 좀 더 강화한다면 나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조언하고 “출연 기금은 장학발딩 1층 갤러리를 마련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좌로부터 全惠淑·申英秀·姜寅求·鄭海元동문

보대원동창회

申英秀동문 축하연 참석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姜寅求) 회원들이 지난 11월 17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申英秀(의학63-69)동문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당선 축하연에 참석했다.

姜寅求회장을 비롯한 20여 동문들은 申英秀동문이 앞으로 서태평

양지역 보건의료계의 큰 발전을 가져오고 우리나라 위상과 입지가 한 차원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申英秀동문은 지난 9월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59차 WHO 서태평양지역회의에서 30개 회원국 중 절대 과반수가 넘는 16표를 얻어 당선됐다. 내년 1월말 WHO 집행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2월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처로 부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姜寅求회장, 모교 보대원 權舜赫·朴亨鍾·鄭文植·文玉綸·李承旭 前원장, 鄭海元원장, 대한보건협회 韓達鮮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金花中회장, 아시아 가정의원 朴寶薰원장, 인제대 李採彥교수, 고려대 林國煥보건과학대학장, 남서울대 鄭斗采교수, 李愛珠·沈在哲·全惠淑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법과대학동창회

도봉산 오르며 친목 다져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正國)는 지난 11월 1일 서울 도봉산에서 동문 가족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등산대회를 열었다.

오전 9시 30분 도봉산역에 집결한 동문들은 우이암을 거치는 3시간 풀코스과 보문능선에서 천진사 방향으로 하산하는 2시간 단축코스를 등반하며 친목을 다졌다.

AIP동창회

姜錫大 前회장 골프 우승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鄭喜鎔)는 지난 11월 17일 경기도 여주 렉스필드CC에서 1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열고 친목을 도모했다. (사진)

이날 대회를 위해 鄭八道(1기)·姜錫大(15기)전임 회장, 이경숙(35기)여우회 회장, 朴榮植(28기)·김영돈(30기)·金鍾演(30기)·유인목(32기)회원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전 : 우승 姜錫大회원, 메달리스트 權漆彦(23기)회원, 2위 제남수(34기)회원, 3위 朴榮植회원 ▲단체전 : 우승 23기(權漆彦·朴碩伊·金乙植), 2위 34기(權潤熙·이영하·김완희), 3위 24기(金洪根·李俊五·金熙泰) ▲기타 : 니어리스트(남·여) 鄭喜鎔(27기)·成善玉(28기)회원, 통게스트(남·여) 정정호(34기)·金孝永(29기)회원.

한편 동창회는 오는 1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IC동창회

尹義國동문 골프 1위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敬俊)는 지난 10월 30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2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결과 崔首賢(9기)회원이 메달리스트에 올랐으며 尹義國(21기)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모교 행정대학원 崔鍾元(경제78-82)교수에게 돌아갔다.

그밖에 통게스트는 崔海哲(11기), 니어리스트는 鄭善友(18기), 최다버디상은 裴容徹(20기)회원이 받았다.

이번 대회를 위해 金日洙(12기) 명예회장 2백만원, 李萬炯(19기)·朴田鎬(19기)·裴容徹 회원이 각각 1백만원, 김진기(14기)회원 50만원, 呂美貞(18기)회원 일본 여행 상품권, 李世韓(11기)회원 디지털카메라 등을 협찬했다.

관악교수테니스회

李京雨·權赫昇교수 승리

관악교수테니스회(회장 吳洙亨)는 지난 11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2008년 추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李基文·金學主·車載浩·梁喆學명예교수 등 42명의 동문이 참가해 A조, B조, S조로 나눠 열띤 승부를 펼쳤다.

8개팀이 출전한 A조에서는 李京雨(금속공학80-86)·權赫昇(영문81-85)동문이 李慶洙(기계공학81-85)·安元植(의학85-91)동문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B조는 6개팀이 경기를 치른 가운데 全永鐵(언어81-85)·崔鶴覺(지구과학교육83-87)동문이 작년 우승자인 徐世源(화학69-73)·石暎幸(미생물81-85)동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명예교수들이 속한 S조는 3개팀이 참여해 車載浩(심리52-56)·曹鍾守(잠사66-70)동문조가 우승했으며 金學主(중문52-56)·池東杓(기계공학64-68)동문이 뒤를 이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본회 林光洙회장, 모교 李長茂총장, 교수협의회, 생활복지조합, 농협, 신한은행 등 교내 관련기관 등에서 금품을 찬조했다. (南)

참여 바랍니다

의과대학동창회

12월 16일 송년의 밤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장충동 소피텔엠베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함춘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제12회 함춘의학상 및 제5회 장기려의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 : 762-9051〉

전북지부동창회

1월 9일 신년회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오는 1월 9일 오후 6시 30분 전주시내 중식당 백리향에서 신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063-275-4555〉

농생대학동창회

1월 13일 신년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韓仁圭)는 오는 1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4950〉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金鍾璇 作



‘다람쥐’, 한지에 厚彩기법, 33×34cm, 2008.

〈작가약력〉

- ▲74~80년 모교 회화와 졸업
- ▲93~08년 개인전 6회
- ▲80~81년 29회·30회 국전 특선 수상
- ▲81년 KBS 자선 초대전

- ▲82년 서울신문사 정예작가 초대전
- ▲93~98년 갑인동인행전
- ▲00년 한·중 작가 초대전
- ▲05~07년 24회 미술대전 심사위원, 목우회 공모전 심사위원 역임
-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분과 이사, 모교 미대 강사



앞줄 좌로부터 구덕희·주형국 감사, 文榮鐵수석부회장, 申一汕회장, 尹煥植전임 회장

AMPFRI동창회

새 회장 申一汕동문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尹煥植)는 지난 11월 26일 서울 서초 로얄프라자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 및 2008년 최고경영대상자를 선정했다.

60여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사업 회무보고, 임원 개선, 최고경영대상자 선정, 장학발당 건립 기금 출연안 등으로 진행됐다.

呂弼東(1기)선거관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임원 개선에서 나노카보나 申一汕(14기)대표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에 아주푸드서비스 文榮鐵(18기)대표, 감사에 주형국(15기)·구덕희(17기)회원을 선임했다.

동창회는 올해 1억3천7백만원의 수입을 건어 골프대회, 한마음체육대회 등의 사업에 8천3백만원을 지출해 5천4백만원을 남겼다.이 가운데 1천만원을 본회 장학발당 건립기금과 보대원 50주년 기념사업에 출연하기로 의결했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수의과대학동창회 李角模회장

(주)동방 대표

지난 10월 수의과대학동창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동물약품업체인 (주)동방 李角模(수의학64-69)대표가 선출됐다.

李회장은 대학 졸업 이후부터 총무, 이사, 부회장 등으로 40년간 동창회를 위해 일해온 준비된 수장이다.

그는 “동문간 친목을 도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일”이라며 동창회 역점사업으로 장학재단 기금 확충과 발전기금 후원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 취임 소감은.

“동창회장이란 자리는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선배님들을 보좌만 해오다 보니 여전히 어리다는 착각에 빠져있었죠. 지난 총회 때 예전처럼 동문들을 식장으로 안내하고 있던 중 朴龍浩학장께서 ‘회장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 앉아 계시죠’라고 할 때 ‘아! 내가 회장이지, 체면을 차려야겠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월이 참 빠름을 절감합니다.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수고하신 李佐幸·鄭英彩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 동창회 소개를 해주신다면.

“지난 52년 창립돼 현재 총 회원이 2천8백여 명으로 임상가, 공무원, 기업체, 교육계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 위생, 생명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매년 10월 첫째 주말에 흠겨밍데이 겸 정기총회를 열어 동문간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재미 동문들도 모두 초청해 흥겨운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으로 골프 모임인 ‘수구회’가 조직돼 있고요.”

－ 계획 중인 역점 사업은.

“장학재단 규모를 키우고 모교



“31년 역사의 항생제, 호르몬제 등 동물약품전문 제조회사입니다. 직원은 수의사 10여 명을 포함해 60명이며 지난해 1백5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서울 도곡동에 본사가 있고 공장은 수원 영통에 있습니다. 대량생산보다는 소량의 전문화, 고부가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첫째도 둘째도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모교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인식하고 동창회, 모교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경기 포천 출신인 李회

“장학재단 규모 더욱 키우겠다”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수의대 장학재단은 97년 故 尹志炳전임 회장께서 1억원을 출연해 설립했으며 현재 3억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10년이란 시간에 비해 규모가 정체돼 있는 편이죠. 동문들을 적극 독려해 동창회 위상에 걸맞은 규모로 키울 생각입니다.

또 지난 2007년 10월에 개최한 ‘주민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 큰잔치’ 같이 모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큰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 동방은 어떤 회사인지.

장은 모교 졸업 후 동물약품회사에서 2년, 약품 도소매업에서 4년을 일한 후 77년 동방을 설립했다. 여러 수의관련 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며 임상수의사들이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공로로 2006년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재경 포천시민회 회장,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 한나라당 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족으로 부인 채민자 여사와 사이에 2남1녀를 뒀다. 〈南〉

만평

李元馥



도약은 계속된다!

“IPTV는 차세대 중요 수출품… 콘텐츠개발이 급선무”

동문을 찾아서

金仁圭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李明博정부의 탄생과 출범과정에서 金仁圭(정치69-73)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만큼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또 있을까 싶다. KBS 공채 1기로 30년 이상 방송인의 길을 걸으면서 대내외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었던 만큼 대선을 앞두고 李明博후보 캠프에 참여했을 때, 李明博 정부 인수위원으로 발탁됐을 때, 그리고 가장 유력한 KBS 사장 후보로 떠올랐을 때 누구나 그만큼 책임자가 없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촛불의 와중에서 과감하게 KBS 사장 후보의 자리를 던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金仁圭답다’고 했다.

李明博정부 출범 1년이 거의 다 지나도록 새 정부의 방송정책이 뚜렷한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金仁圭 KBS 사장’에 대한 아쉬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金仁圭회장은 IPTV라고 하는 대한민국 방송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에 폭 빠진 듯 했다.

대담 : 본보 蔡耕玉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 뉴스속보국 취재팀장)

— 최근에는 유력한 KT 사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시다가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디지털미디어협회쪽에 아예 눌러 앉으시는 건가요.

“KT 사장은 무슨…; 그럴 생각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 인터뷰만 한 20군데 이상 했는데.”

— 그럼 IPTV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동창회보를 위한 인터뷰니까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된 이유일까. 사실 그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색이 있거나 그러신 분도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이 강권을 한 건지.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과정과 그때의 솔직한 느낌이 궁금합니다.

“방송인으로 주옥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 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지난해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李明博후보 캠프에서 방송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달라 했습니다. 사실은, 그 1년 전부터 합류 제의가 들어왔는데 정치 특정캠프에서 일하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선거캠프에 몸담는 것 자체가 방송인으로서 약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어요. 그래서 여러차례 고사를 했는데, 개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커다란 대의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아췌든 결단을 내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방송인 金仁圭’가 ‘정치인 金仁圭’로 보여지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 캠프에 들어가서부터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그때 李明博대통령 후보가 야당 후보로서 그런지 몰라도, 李明博후보는 물론이고 주변 캠프사람들이 방송사 TV토론 등에 참여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거라는 의식이 팽배했어요. 李明博후보가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방송 TV토론 같은데 가장 많이 나가게 된 것은 우리 같은 방송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뽕뽕하게 임하고 만약에 방송이 불공정하게 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다 알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했죠. 그 부분은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 사실 盧武鉉정부 5년 동안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KBS나 MBC가 상당히 편향적인 방송을 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KBS 출신 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불공정 보도, 편파방송 문제인데 사실 방송사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외부로부터의 편파방송, 시비가 들어올 때입니다. 제가 정치부장도 하고 보도국장도 했으니까 잘 알지만 과거에는 주로 정치권력의 압력이 유일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권력의 압력도 있지만 다양한 이익집단들, 내부압력 등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를 후배들이나 동료 들하고 많이 합니다. 영향력이 큰 방송이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하는데 아직도 이념적인 잣대를 자꾸만 들이대는 풍조가 남아 있습니다.”

— 최근 경제위기 때문에 방송사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파쪽에서는 ‘민심은 천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방송이 사유화되고 이념화되고 편향된 부분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KBS를 2003년에 떠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보니까 이미 지상파 위기는 눈에 보였어요. 과거에는 전파를 지상파가 독점했기 때문에 항상 강자의 위치에서 모든 걸 다했죠. 시청률도 독점, 광고 점유율도 다 독점으로 갔는데 지금은 지상파를 직접 보는 사람은 10%도 안되고 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이 많이 생겼죠.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청자와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주인이 결코 확실하지 않고 다원화돼 있죠.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성별, 빈부의 차이 등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이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젊은 방송인들은 우리 뜻을 그냥 그대로 표출하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건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이 안돼서 빚어진 거예요.”

— 방송인들한테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BBC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진보쪽으로 나가면 다음 번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보수쪽 프로그램을 또 하나 내보냅니다. 방송사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인데 KBS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갑자기 국장, 부장, 차장, 기자나 PD 이렇게 4단계 있는 거를 갑자기 팀장과 팀원으로 2단계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게이트 키핑이 크게 약화됐죠. 당시 제가 KBS 사외이사로서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몇 달 동안 반대하고 그랬어요. 鄭淵珠사장이 문제가 있으면 보완 하겠다 하면서 몇 년을 끌었어요. 이번에 아마 고칠 겁니다.”

— MBC의 경우 일반인들은 민영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소유구조나 방송 주체들의 정체성은 공영처럼 돼 있고 약간 왜곡된 형태인데, MBC 민영화 문제 그리고 PD 저널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전 감사원에서 KBS 감사를 끝내면서 순수한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없고 상업적 공영방송이라고 분류했어요. 광고비율이 전체 재원의 30% 이내이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 50%가 넘었기 때문이죠. MBC 같은 경우는 재원의 거의 90%가 광고죠.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주가 누구냐, 그 다음에 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표지]

“한국이 세계 IPTV 분야 이끌 수 있어”

기술력·콘텐츠·글로벌 마인드 갖춰야

대통령선거에서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 정권 초기 가장 심각했던 사안이 촛불시위 아니겠습니까. 李明博정부 초기에 엄청난 내상을 입혔다고 평가되는 촛불시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순수하게 이게 정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나온 순수한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념적으로, 이념의 장을 펼쳐보자는 세력이 결합이 된 거죠.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 문턱에서 계속 이념논쟁을 벌여야 되나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방송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념논쟁이라는 것이죠.

방송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방송의 재원을 만들어주는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서비스

케이블을 통해 보거나 위성을 통해서 보고 IPTV,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소위 콘텐츠 유통과정이 다양화되면서 다매체, 다채널 상황이 됐죠.

미국은 이미 2001년에 지상파가 비지상파한테 시청률과 광고에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KBS에서 2000년부터 뉴미디어본부장을 3년 하는 동안 앞으로 지상파는 모든 면에서 위상이 격감되면서 위기에 빠질거다 예감을 했어요. 위기는 예견됐던 것이긴 한데 다만 그 속도가 가속화된 건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정도를 벗어난, 그런 영향을 더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 경제난국 상황에서 KBS가 하는 게 뭐 있느냐, 무엇보다도 KBS가 지금 자기들끼리 오래오래 눌러 붙어서 월급 많이 받고 살자 이런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이 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팽배한데요.

“KBS가 우리나라 국가기관 공영방송인데, 직원이 5천5백명이나 되고 특히 지금 문제는

“방송인은 먼저 공적책임에 대한 윤리적 무장이 돼야”

☑ 셋째 방송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눠요. 재원에서 보면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소유면에서는 또 공영성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TV가 1공영 2민영이었어요. KBS가 공영방송이고 MBC, TBC가 있었죠. 그런데 80년 언론통폐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정권이 TBC를 없애고 KBS로 합치고 MBC도 갑자기 공영방송화해서 2공영 체제가 된거예요. MBC가 공영이라고 하는거는 80년 언론통폐합에 따라서 이뤄진 부자연스러운 공영화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민영방송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SBS가 출현한거죠. 지상파 TV의 경우 2공영 1민영 체제가 맞거나 그런 방송구조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전체그림 없이 MBC 민영화만 갖고 논쟁이 붙어있는 상태죠.”

— MBC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KBS에서 주욱 보면 공영방송은 오히려 KBS로 1공영으로 하고 차별화해서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영방송의 대표격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인데 다 1공영 다민영 체제거든요. 지금 한나라당에서 국가기간방송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국가기간방송법이 공익적 채널을 다 모아서 한 회사를 만들자는 취지로 알고 있어요.”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글로벌 언론들이 뚜렷하게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송도 머독, 터너라든가 글로벌한 채널을 갖고 있는 미디어재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방송의 국제경쟁력은 어디에 와있다고 보십니까.

“KBS가 BBC, NHK에 버금가는 세계 3대 공영방송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당히 뒤쳐져 있는 상태죠. 최근에 특히 젊은 언론인들은 방송이 국가이익도 대변하면 안된다는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도 급해지면 자국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데도 말이죠. 방송이 특정 정권의 이익을 대변하는건 당연히 문제가 있죠. 하지만 국가의 이익에 관한 문제를 정권의 이익으로 연결시키거나 혼동하면 곤란하죠.

그 예가 FTA인데, FTA협상문제를 마치 정권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고 풀리지 않죠. 하지만 이건 국가 이익문제란 말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주인이 국민인데 국가간 이해관계가 대립돼서 당장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그러면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공영방송은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일부 젊은 언론인들이 상당히 있어요.”

— IPTV는 한국의 방송경쟁력, 특히 국가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서있는 분야잖아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고 보세요.

“3가지 점에서 인터넷이 뚜렷한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VOD서비스가 마음대로 되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인터랙티브(inter-

active)가 되고, 세 번째는 IPTV가 인터넷 기반과 TV를 연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채널의 개념이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점이지, 제가 기자하면서 흑백TV에서 컬러TV로 바뀌는걸 봤는데, 그 변화가 1이라면 방송의 디지털방식에 의한 변화는 100 이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 구현되는 게 IPTV죠.”

— 케이블TV의 경우 공중파의 재탕, 특히 미드·일드 이런 콘텐츠가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IPTV가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기술이 앞서서 경쟁력이 있는건지 아니면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는건지요.

“지금 IPTV가 한국이 제일 앞서간다고 하는데요. 우선 IPTV의 기반이 인터넷인데 인터넷망으로 치면 대한민국처럼 잘 깔려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망을 TV에 연결하는 셋톱박스도 우리가 세계 1

앞으로 훌륭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글로벌 마인드까지 갖춘다면 세계시장에서 이 분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현재 케이블TV의 가장 큰 문제는 심야, 밤 10시 이후의 폭력과 섹스의 난무, 선정성 문제고 인터넷도 근본적으로 선정성, 익명성이 문제인데 IPTV쪽은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세계적인 추세는 콘텐츠가 왔다갔다하는 유통망은 다 풀어주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콘텐츠를 심의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당히 강화돼야 하고 권한도 과감하게 줘야 합니다. 문제가 되면 아주 강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면 콘텐츠 문제는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통융합



KBS 공채 1기로 공영방송의 ‘산증인’

“정치엔 관심 없어...성격상 절대 못해”

위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현될 콘텐츠가 과연 있느냐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빨리 해서 콘텐츠 사업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협회의 첫 번째 과제가 올해 내로 IPTV를 론칭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페루가 라미의 1천만명 인구를 대상으로 IPTV를 통해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데, 우리하고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광물자원을 우리한테 주고 그 대신에 이쪽 IPTV를 그쪽에 활성화해달라는 것인데 그쪽에서 제일 큰 목표가 교육입니다. 페루국민의 교육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IPTV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계약을 하는데 있어 망사업, 솔루션, 셋톱박스는 다 잘돼 있는데 그 속에 채워질 콘텐츠가 검증이 안된거예요. 이런 나라가 현재 페루만 있는 게 아니라 멕시코, 필리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수십 군데입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중요한 수출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임해야되는데 통신사, 방송사 등 사업자들이 글로벌 마인드가 결여돼 있어요.

이 되면서 심의기구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 30년 전에 방송사 들어가는 게 흔한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더구나 당시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오셨는데요.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신문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임교수님께서 저더러 KBS가 공채 1기생을 뽑는데 당신이 방송기자 자질이 있으니까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문사 간다고 우기니까 이 양반이 이미 외국은 신문보다 방송이 앞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낙년잡고 10년 뒤면 그렇게 될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하도 그러셔서 시험이라도 보자 하고 있는데 달력 됐어요. 교수님께서 예언했던 10년이 사실은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 이념적으로 대칭에 있는 사람들과도 두루 잘 어울리시는데.

“아버님이 교육자셨는데 저에게 남겨주신 가훈 비슷한 게 ‘중용’이에요. KBS 사장 후보에서 사퇴할 때도 막판에 너무 KBS 사장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벌

떡 들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죠 ‘이건 아니다. 중용의 도에서 벗어나는거다’라고 생각했죠.

아까 PD 저널리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PD 저널리즘이라는 단어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PD들이 비정상적으로 권력화돼 있어요.

KBS 서울 본사에만 PD가 7백50명, 전체로는 1천명, 기자는 4백30명(전체 6백명)이에요. 외국은 기자와 PD 수가 보통 기자 2.5 대 1 아니면 3 대 1이에요. PD들이 많다보니까 시사투니잇 같은 프로그램 막 만들고 프로그램 하나에 PD가 8명씩 매달리고 그런거죠. 심지어 PD 특파원도 있잖아요. PD 특파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지금 KBS는 PD 한 3백명 들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방송개혁 1번이 PD 개혁이에요.”

— 서울대 출신들이 막판까지 재고 자기 희생이 없다는 비판이 많은데.

“제가 KBS 사장 후보직 던지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이 저를 위해서 파티를 해주면서 ‘경기 출신이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좋았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더군요. 지금도 그렇게 후회는 안하고 잘한 것 같다 생각해요.”

—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정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치는 안 합니다. 이상하게 정치부를 오래하다 보니까 정치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치인은 살아남으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나야 돼요. 확실한 연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저는 불행히도 부모님이 다 서울이예요. 돈 압동에 논두렁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돼요. 돈 없으면 치사해져요. 그것도 안되면 마지막이 정치 보스를 확실하게 붙들어야돼요. 신발도 가슴에 품고 자고 그러잖아요. 제 성격상 절대 못하죠. 그러면 결국 언론인으로 어떻게 배지 달아본들 4년, 8년 하고 나면 끝나는거예요. 저도 내일 모래면 환갑인데 지금 나이에 하기 싫은걸 억지로 할 필요 뭐 있어요.”

— 방송인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조언 한마디 하신다면.

“지금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직업 물으면 방송국이 거의 1, 2등 다뤄요. 기자나 PD나 탤런트나 뭐하고 싶냐 물어보면 그냥 방송국이에요. 그런데 방송이라는 건 사회적 책임이 참 크다 말이에요. 방송인으로서의 책임감도 큰데 그런 부분은 별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들어와요. 특히 젊은 방송기자들은 왜 내가 마음대로 말을 못하느냐, 이런 언론자유 침해다 그래요. 저널리즘의 기초를 무시하는 발언이죠. 방송에서의 뉴스는 기자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던져주고 시청자들이 판단하는건데, 자기 주관을 전달하고 싶다는거죠. 방송기자나 PD, 저널리스트가 되려면 공적책임에 대한 확고한 윤리적인 무장이 돼야 해요. 준비가 안돼서 들어오면 자기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李五峰=설위원·정리=表智媛기자)

SCI 등재 학술지에 총 2백30편 실려

최근 몇몇 일간지에 ‘서울대 논문왕’으로 소개된 기사가 눈에 띄어 지난 11월 17일 공대 재료공학부 黃哲盛(무기재료83-87)교수를 찾아왔다. 黃교수는 지난 3년간 과학기술 논문색인(SCI)에 수록된 학술지에 67편의 논문을 발표해 모교 교수 중 최다 발표 타이틀을 갖게 됐다. 지난해 모교 교수 평균 논문 수는 3.71편이었으니 6배 가량 많이 쓴 셈이다.

黃교수는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서울대 논문왕’이란 타이틀에 대한 부담감을 쏟아냈다. “교수가 야구선수도 아니고 논문왕이라니,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제가 몇 편을 썼는지도 몰랐고요. 반도체 분야나 나노 사이언스 분야 등은 논문을 많이 쓰는 분야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수치상으로 1등이라고 보도가 되니까 부담이 되죠. SCI 논문을 많이 썼다고 좋은 연구를 하는 거냐, 훌륭한 학자냐 그건 아니거든요.”

총 피인용수 3천회 넘어

그래도 남들보다 많이 쓴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다. 14년 교수 생활동안 발표한 SCI 논문이 총 2백30편. 특히 중요한 것은 SCI 학술지에서 피인용수가 3천여 회에 이른다는 것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논문 인용횟수가 4천8백여 회인 것을 보면 20년 이상의 연구기간이 남은 黃교수의 잠재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주요 논문 중 하나는 1백20회 이상의 피인용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백회 이상의 피인용 논문은 ‘수퍼스타급’ 논문으로 평가받는다.

논문 다작의 비결에 대해 黃교수는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다들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학생들이 열심히 해주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뿐이지 특별한 것은 없어요.”

黃교수는 매일 아침 8시 전에 출근해 밤 10시 쯤 퇴근한다. 14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셈이다. 그의 연구실은 여느 교수 연구실과 다르다.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 책은 서재에, 볼펜은 통 속에, 꾸준한 노력과 몸에 밴 정리습관이 다작의 비결이 아닐까.

그의 연구 분야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다. 고용량 메모리는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야 하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컴퓨터, 게임기,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사이즈를 기존보다 50% 이상 감소시킨 ‘차세대 D램 소자용 캐피시터(Capacitor)’ 핵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반도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것은 지도 교수였던 金亨俊 前기학실장의 역할이 컸다.

“金亨俊교수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만났어요. 80년대 후반이죠. 대학원 학생 중에서는 제가 아마 두 번째 제자일 거예요. 그 당시 앞으로 몇 년 후면 반도체 분야가 유망할 거란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분을 존경했고 그 분야가 재미있어서 유학도 안 가고 모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모두 받았죠.”

국내과인 黃교수는 요즘 무조건 유학 가는 풍토에 대해 걱정이 많다. 최근 모교 대학원에 모교 출신이 50%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우수 학생들이 모교보다는 해외 명문대를 선호하기 때문. 한 나라의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넘쳐나야 한다.

黃교수가 석·박사학위를 받을 당시에는 유학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당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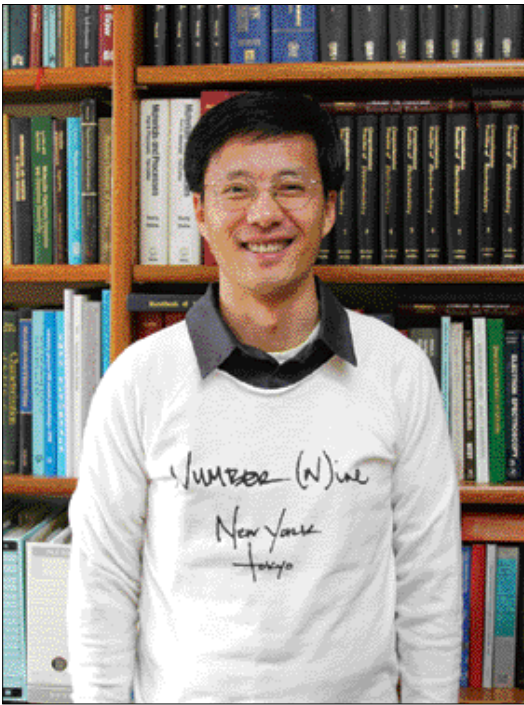
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교수들도 ‘이제는 유학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런 분위기 탓인지 모교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동기들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 공부를 했다. 黃교수도 모교 대학원에 못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했다고.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서울대 학부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유학을 선택해요. 이공계 학문에서 획기적인 진보는 대부분 대학원생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요. 똑똑한 학생들이 남아 있어야 모교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대학이 몇몇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오히려 유학 가서 받는 언어, 문화 스트레스 대신에 이곳에서 공부하는 데 열정을 쏟아 부으면 훨씬 나올 수 있죠.”

‘반도체 메모리 소자’ 연구

현재 黃哲盛교수 연구실에는 24명의 학생들이 있다. 그동안 거쳐간 제자들은 45명, 그 중 박사학위자는 6명. 黃교수의 명성을 듣고 독일, 스위스에서 공부하러 온 해외 유학생도 4명이 있다. 올 겨울방학에는 박사학위를 받는 두 제자의 논문을 봐주고 정부와 관련업계에서 의뢰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 연구 목표인 테라비트 메모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 공정, 새로운 소자 구조에 대한 연구도 빠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 뭐냐는 질문에 ‘협동심’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회사를 다녀 보니까 서울대생들이 독립적인 일은 잘 하는데 함께 하는 일은 좀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협동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죠. 사수, 부사수, 조수 등의 역할분담을 시켜 청소, 연구, 실험 장비 수리 등 모든 일을 함께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실 대학원에서 배운 것으로 밖에서 얼마나 써먹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죠.”

경북 후포가 고향인 黃哲盛교수는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 청운중학교와 경북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모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했다. 2002년 11월 독일 훔볼트재단이 수여하는 ‘Humboldt research fellowship Award’에 선정됐으며 2004년 40세 이하 젊은 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7회 ‘젊은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에는 모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수여하는 ‘도연 창조상’(부상 금1백돈)을 받기도 했다. 대학원 시절 동료로 만난 부인(崔廷蕙 무기재료86-90) 역시 과학자로 KIST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장인(故 崔東圭 화학공학62졸), 장모(鄭淑澈 화학공학58-62), 처남(崔容鎭 전자공학84-88)이 모두 모교 출신이다. 연구실에 자신의 그림을 걸어 놓을 정도로 잘 그리며 클래식 음악에도 조예가 깊다. (南)

(주)한우물

일산테크노타운 姜松植(영아교육60-64) 대표의 사무실은 일반 학자들의 연구실처럼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姜동문은 경기고와 모교를 졸업하고 영어 교사로 20년간 교직에 몸담았다. 그런 그가 정수기 시장이 보편화되지 않은 1985년 교직을 떠나 건강과 관련된 ‘물’을 공부했다. 한우물만 관지 24년. 연구원 한 명과 시작한 회사는 현재 10개의 매장과 2개의 해외 지사까지 두었으며, IMF에도 끄덕 없는 건실한 중소기업이 됐다.

사장은 선생님, 직원은 식구

姜동문은 사장·대표라는 직함보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오랜 기간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터라 선생님이란 호칭이 더 편하며 말문을 열었다.

“하루아침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병원에서든 포기한 병을 부항과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면서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됐죠. 당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건강을 상담해주고 부항치료를 가르쳐 주면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가장 흔하게 마시는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구 및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다. 무엇보다 가족들, 주변 동료, 제자들 모두의 반대가 심했다. 姜동문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좋은 스승이었고 감직



일산테크노타운에 위치한 한우물 정수기 공장

세계 최초 美FDA 승인받은 정수기

한 교육자인 그가 사업을 한다니 실망한 눈빛이 역력했다.

“당시 선생님들 과외가 열풍이어서 다른 선생님들은 과외로 더 많은 수익을 낼 때도 저는 안 했습니다. 그건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교육철학과 양심에 비춰 볼 때 교단에 선 사람이 부수적인 수입이 생기면 돈의 노예가 될 것 같았죠. 그렇게 돈 욕심 없이 지내던 제가 사업을 한다니 모두 놀랐죠.”

그런 끝은 성품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직원들을 식구라고 부르고 직원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비싼 정수기 값을 가격인상 없이 20년째 같은 가격(89만 1천원)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는 순이익의 1%를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姜동문은 한우물 정수기의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른 물은 마시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

을 때, 물을 마시고 건강이나 피부가 좋아진 사람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사업 초기에 돈이 없어 홍보나 광고비용이 없었어요. 우격다짐으로 인맥을 통해 정수기를 팔았죠. 입소문의 효과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또 마침 지금은 웰빙시대잖아요. 먹거리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선견지명이 있었던 걸까. 그가 만든 한우물 정수기의 약알칼리수는 암세포 증가를 예방하고 활성수소가 풍부해 노화의 원인물질을 없애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

아름다운 재단에 수익 1% 기부

한우물 정수기는 지난 2005년 세계 정수기업체에서 최초로 美FDA에 의료기기로

등록이 됐다. 한우물 정수기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여기저기서 기술을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통비용 때문에 지금 정수기 값의 2~3배가 되죠.”

정수기용 필터 교체의 비합리성과 구매에 따른 비용과다 등 음용수에 관한 잘못된 정수 문화를 바로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물을 부담 없는 가격에 공급하고 싶다는 동문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전했다.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본인의 굶은 신념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잠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리더인 동문들이 너무 위만 바라보며 비교하는 삶보다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길 바랍니다.” (榮)



姜松植대표



鄭鍾平대표

공대 SNU프리스이션(대표 朴喜載), 의대 마크로젠(대표 徐廷瑄), 자연대 바이로메드(대표 金善榮), 약대 네오믹스(대표 金聖勳). 모두 모교 교수가 설립한 대표적인 교내 벤처기업이다.

위 업체 중 SNU프리스이션, 마크로젠, 바이로메드는 코스닥에 등록돼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뿐 아니라 산학연의 대표 모델로 모교 재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업체에 이어 치의학대학원에도 치주과 학교실 교수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04년 나이백(NIBEC, Nano Intelligent Biomedical Engineering Corporation)이란 벤처기업을 설립했다.

나이백(대표 鄭鍾平 치의학63-69)은 치아 미백제 ‘블랑티스’란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지난 9월 농수산식품 채널에 처음 소개돼 10회에 걸쳐 매진사례를 기록 중이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GMP 신공장 전경

조직재생 생체재료분야의 유일 기업

대기업에서 치아 미백제 사업을 철수하는 요즘 신개념의 미백제를 들고 나와 히트를 친 것. 편리한 사용법과 빠른 효과, 오랜 지속력이 장점이다. 나이백 박운정(모교 치의학과 교수)연구소장은 “2주일 동안만 매일 치아에 립스틱 바르듯 발라 주면 5일 이면 효과가 나타나고 6개월 정도 깨끗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교 치과 교수들이 오랜 연구와 임상시험 끝에 발표한 제품이라 신뢰도도 높다.

치아 미백제 ‘블랑티스’ 인기

이 제품 외 ‘센스블록’이란 치아 통증완화제를 찾는 고객도 많다. 센스블록은 치아표면의 손상으로 시린 증상 등을 간편한 치아 도포만으로 빠르게 막아주고 억제해주는 제품이다. 치과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치료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鄭鍾平대표는 “블랑티스나 센스블록이 나이백을 널리 알린 효과 상품이지만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분야는 펩타이드 기반 조직공학재료 연구”라고 말했다.

나이백은 펩타이드(단백질)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해 손상된 근육, 뼈, 신경, 피부를 빠르고 통증을 덜 느끼며 간편하게 치료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다. 골이식재 등의 생체재료를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만드는 곳은 나이백이 유일하다.

모교 치대 교수들 뜻모아 설립

이 회사의 모체는 한국과학재단 지능형생체계면공학연구센터이다. 지금도 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鄭대표는 이 곳에서 뼈·피부·신경 재생 등의 기능을 가진 생체재료를 만드는 기술력을 축적했다. 처음에는 그 기술들을 다른 회사에 줬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결실을 못 맺어 센터 팀원들과 의기투합해 회사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張桂順(치의학67-73)·鄭鎭亨(치의학69-75)·鄭弼薰(치의학73-79)·李相勳(치의학74-81)·閔炳武(치의학74-80)·金熙重(의학74-80)·金鉉滿(치의학82졸)·李承晉(제약76-80)·鄭東準(공업화학77-81)·趙炳薰(치의학78-84)·具英(치의학80-86)·朴元好(섬유공학81-85)동문 등이 주

요 멤버다.

이들과 함께 지난 2004년 1월 나이백을 설립하고 모교 연건캠퍼스 치의학 신기술 창업보육센터에 자리를 잡았다. 제품 연구와 생산에 들어간 지 3년만인 지난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맞췄다. 지난해 매출액이 10억원, 직원은 22명으로 늘었다. 鄭대표는 “올해는 나이백에게 의미있는 한 해로 공장을 준공하고 블랑티스 등의 제품에 힘입어 3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산학중계연구센터’로 지정 받아 3년간 15억원을 지원 받으며 보건산업 기술대전 벤처부문 산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올해 초에는 鄭대표 고향인 충북 진천에 1만5천㎡ 규모의 대지에 연구소와 GMP 신공장을 건립했다. (南)

‘기술지주회사’ 본격 출범

설립기념 현판식·국제컨퍼런스 열어

모교 소식

지난 11월 3일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기술지주 주식회사’(대표 盧政翼)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李長茂총장, 金信福부총장, 金夏奭대학원장, 金明煥교무처장, 張在盛학생처장, 徐鎭浩연구처장, 朱鍾南기획실장, 발전기금 南益鉉상임이사, 기술지주회사 盧政翼대표, 백선우 지식관리본부장 등 교내외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 17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및 기술 사업화 관련회사를 초청해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李長茂총장은 환영사에서 “연

구비 확보 및 산학 연구 활성화를 유도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다”며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지식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업 및 취업기회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해외 유명대학의 기술지주회사 대표들의 연설로 시작됐으며 모교 기술의 상업화를 주제로 현재 모교에 속해 있는 기업체 소개 및 숨겨진 잠재성에 대해 강연을 했다.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朴喜載(기계설계79-83 SNU프리즈션 대표)교수는 강연에서 “대학창업은 유통시킬 수 있는 시장접근 및 연구비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다”며 “철저한 비즈니스 정신을 가지고 모교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술지주회사는 청화대의



좌로부터 朱鍾南·金夏奭·孫一根·盧政翼·李長茂·林光洙·金信福·張在盛등문, 백선우 지식관리본부장

청화 홀딩스·뉴질랜드 오클랜드대의 유니서비시사·싱가포르 익스플로이트 테크놀로지사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며, 모교와 해외 우수 기술지주회사와의 네트워크를 위해 마련된 공식만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세계 주요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대표, 관계자 2백여 명이 참석했다.

林光洙회장은 공식만찬에서 “회사 설립에 많은 도움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서울대인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고 건배를 제의했다.

모교는 현재 3천개의 특허기술

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3백개의 특허기술을 출원, 등록하고 있다. 이들 특허기술 중 우수 기술을 발굴, 선별해 자회사를 창업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출범시켰다.

기술지주회사는 ‘Innovative Pathfinder’(혁신적 개척자)를 슬로건으로 삼아 모교가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데 발맞춰 회사 경영 및 투자 분석 전문가들을 영입해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국내기업 투자 및 투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한 벤처창업을 적

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청화대 기술지주회사인 청화 홀딩스는 무려 3조5천억원이 넘는 자산에 96개 자회사가 있다. 국내 대학에서는 지난 9월 한양대(HYU Holdings)에 이어 모교가 두 번째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盧政翼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학의 인적자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교수, 학생들의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회사 운영 경험과 결합해 과거 벤처 거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20개팀 출전 ... 매드스톰스팀 이겨

지난 11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야구장에서 제15회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孫一根상임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야구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며 “선배 고교동문들이 함께 어울려 야구를 통해 참여의 즐거움과 협력의 소중함을 깨닫자”고 말했다.

이어 孫상임부회장이 야구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야구부 유병수(경영06입)주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시구를 했다.

이번 대회는 20개팀 약 2백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30일까지 각축전을 벌였으며, 고교 연합팀인 매드스톰스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공과대학

교수상·신양학술상 시상

공과대학(학장 姜泰晉)은 지난 10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훌륭한 공대 교수상’, ‘신양공학학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제17회 ‘훌륭한 공대 교수상’ 교육상 부문에 재료공학부 李厚喆(금속공학63-67)교수, 연구상 부문에 에너지자원공학과 申昌秀

교수를 선정했다.

제4회 ‘신양공학학술상’은 재료공학부 郭承燁(섬유공학83-87)교수, 에너지자원공학과 朴亨東(자원공학84-88)교수, 기계항공공학부 趙孟孝(항공공학80-84)교수, 컴퓨터공학부 文炳魯(계산통계80-85)교수, 화학생물공학부 成永恩(공업화학82-86)교수, 산업공학과 朴鍾憲(산업공학86-90)교수에게 수여했으며 부상으로 각 1천만원씩 신양공학 연구기금을 전달했다.

음악대학

동경예대와 합동 연주

음악대학(학장 鄭台鳳)은 지난 11월 15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동경예술대학교 관악합주단과 합동으로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모교 기악과 金泳律(기악76-80)교수, 동경예대 에리키 이나가와 교수의 지휘와 두 대학의 재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통해 양 국가간 이해와 친선의 장을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모교 음대가 동경에서 합동연주회를 펼친 바 있으며 두 학교의 수준 높은 연주기량이 성공적인 하모니를 이뤘다는 평을 받았다.



자연대 李鍾燮학장 선임

지난 11월 3일 자연과학대학 학장에 생명과학부 李鍾燮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李학장은 73년 모교 식물학과에 입학해 77년 졸업한 후 81년 캐나다 요크대에서 석사, 84년 캐나다 맥길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6년 모교에 부임한 후 모교 입학관리본부장, 한국분자생물학회 출판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행대원 崔鍾元원장 임명

지난 12월 6일 행정대학원장에 행정학과 崔鍾元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崔원장은 78년 모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82년 졸업, 89년 미시건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4년 모교에 부임한 후 모교 행정대학원 부원장 등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榮)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㉔

曹貞植열사 추모비

모교 관악캠퍼스 자연과학대학(25동) 앞 ‘녹두마당’에 세워져 있는 故 曹貞植 열사의 추모비. 曹동문은 1982년 모교 물리학과 입학 후 민주화 운동을 펼쳤으며 직접 노동자의 삶을 살며 투쟁하기 위해 1989년 5월 ‘영진기계’에 취업했으나 2주일만에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지난 2월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2006년 이후 4천명 기부... 총 2천6백억원 보유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은 지난 2006년 모금캠페인(Capital Campaign)을 시작한 이래 4천여 명의 기부자로부터 1천8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로써 총 약 2천6백억원을 보유하게 된다.

모금캠페인 'Vision2025'는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거듭나려는 모교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국내 대학 가운데 모교가 최초로 실행했으며 2010년까지 3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 중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교내의 '작은 참여 모금캠페인'에는 교수, 교직원, 학생 등 9백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55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기부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모교의 국제화 사업에 필요한 '국제관' 건립을 위해 롯데장학재단(대표 盧信永 법학50-54)이 70억원, 대림건설(대표 林完洙 AMP 36기)이 50억원을 약정했다.

모교에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한 개인 기부자는 2백억원을 꾸준히 기부해온 신양문화재단 鄭哲圭(화학공학48-52)이사장이다.

鄭이사장은 모교 공대·인문대 신양학술정보관 건립기금을 출연했으며, 현재 제3호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건립비도 기부한 상태다. 또 화학공학과 학술기금, 공학학술 시상기금, 언론정보학과 기금교수를 위한 기금 조성 등 연구와 학술활동을 위한 기부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교와 아무 연고 없이 1백억 상당의 건물을 기부한



교내 '작은 참여 모금캠페인'을 홍보중인 재학생들

태광사 李龍熙대표, 모교 기부보함 1호인 서울물방울치과 黃在鴻(치의학90-94)원장 등이 모교 발전을 위해 기금을 쾌척했다.

국내 대학의 기존 모금방식이 총장 등 주요 교내 인사들의 인맥에 주로 의존했다면, 모교 발전기금이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부자 맞춤형 기부방법 및 모금상품의 다양화와 기부자 요구에 맞춘 예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각계 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李長茂총장은 "교수업적 평가와 연구·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선진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 학문적 역량은 세계 50위로 평가받았다"며 "융·복합교육의 기초를 다지고, 서울대 노벨상 프로젝트(SNU Noble Prize Project)를 추진하는 등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발전기금 南益鉉총임이사는 "영

국의 더 타임즈 선정 대학순위 1위를 기록한 하버드대의 발전기금 규모는 40조원, 30위를 기록한 아시아의 싱가포르대는 1조1천억원인데 반해, 모교의 발전기금은 3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적인 안정 없이 대학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기금 모금액이 그 대학의 순위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南상임이사는 "그동안 이러한 금액 측면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서울대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학교 밖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지를 느끼고 있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금캠페인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울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교 발전기금 제공)

재학생의 소리



“자전거 묘미를 만끽하세요”

저는 현재 재료공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林載潤입니다. 현재는 생명과학부로 전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드바이크를 탄 저는 대략 1년 반이 돼가며 등교에서부터 방과후 취미생활까지 자전거는 제 일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타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그 자체는 좋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 적절히 고양되지 못해 자전거가 차도로 출입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며 또 난폭운전이 심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자전거의 묘미를 깨치기가 조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커뮤니티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의 접근성은 학교 동아리의 접근성에 미치지 못하며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전거 동아리 '파아란'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자전거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같이 산악자전거도 타고 로드바이크도 타며 또한 정비에 관련한 교육 역시 수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동아리 회원이 많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자전거라는 취미가 아무래도 학부생이 접하기 힘든 장르이며, 그 가격 역시 조금만 전문적인 등급이 돼도 매우 비싸져 학생에게는 약간 무리인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생보다는 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이 더 많으며 어쩔 수 없이 현재 동



林 載 潤

(재료공학07입)

자전거동아리 '파아란' 회장

아리는 OB와 YB에 큰 구분을 두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교는 자전거를 타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에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부터 저 멀리 위쪽의 신공학관까지 이르는 코스는 훈련에 적합해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자전거를 타는 구간입니다. 또 관악산을 옆에 끼고 있으며 보라매공원까지 가면 금세 자전거도로를 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췄습니다. 각종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이 있어 동아리 밖의 자전거 생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고유가시대인 지금 레저로도, 교통수단으로도 여느 다른 것들에 비해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점을 가진 자전거를 시작하기에 모교는 각종 주변환경과 본 동아리 '파아란'까지 많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파아란'의 문을 두드리는 교우는 적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알고 즐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관악을 보고, 듣고, 맛보세요”

문화 향기 가득한 캠퍼스 투어

서울대발전기금은 선후배간 만남을 주선하고 학내 다양한 문화시설 및 전시를 관람하는 캠퍼스 투어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접수 : (재)서울대발전기금 캠퍼스 투어 담당자

- Tel : 02-871-1222 / Fax : 02-872-4149

- 홈페이지 : <http://www.snu.or.kr> / E-mail : snuf@snu.ac.kr

◆참가비 : 없음.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모집단위 : 20명 내외

- 단과대·특별과정·학과별 사전 신청에 따라 졸업기수 형태로 진행 예정

- 기수 당 20명 내외

◆내 용

- 학내 문화시설 및 전시 관람 및 교내 인사·후배와의 만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미술관, 박물관, 중앙도서관, 관악수목원)

- 기타 학내 체험 등

(홈커밍데이와 같은 단과대학(원) 및 학과 자체 행사에 편성·활용 가능함)

* 학내 투어 기관은 단과대와 학과의 요청에 따라 맞춤으로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 長 茂

미술관 '윌리엄 블레이크'전

미술관(관장 鄭憲民)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009년 2월 14일까지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자 화가 겸 판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사진)을 전시한다.

‘윌리엄 블레이크와 그의 예술적 유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로 그의 작품과 그가 영국 미술계에 끼친 영향을 조명한다.

한편 미술관은 지난 10월 12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주목할만한 신진 작가들을 선정해 소개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MoA Vision1'전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 '몽골, 고대문화'전

박물관(관장 宋基豪)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몽골, 초원에 핀 고대문화'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와 몽골 국립박물관에서 2백50여 점의 유물을 대여와 개최한 것으로, 전혀 녹슬지 않은 생생한 청동유물과 각종 장식물 등이 선보인다. (榮)



윌리엄 블레이크의 '태고의 날들'

콩트 릴레이

간통, 불륜의 해결사

崔 尙 圭
(동물학63 - 67)
동국대 외래교수
한국추리작가협회 부회장



실험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예”라고 대답을 하자마자 한 젊은 여자가 어린 아기를 땀땀에 받쳐 안고 들어왔다. 그 뒤를 이어 젊은 사내와 형사 한 분이 들어왔다.

“이 아기는 저 남자의 아기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우기니 박사님께서 사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 아기가 어째서 내 아기란 말이나? 박사님, 내 아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두 젊은 남녀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같은 내용의 말 싸움이 큰소리로 계속 되풀이됐다.

“이 아기는 저 남자의 아기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우기니 박사님께서 사실을 밝혀 주십시오.”

“제 처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그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정액이 묻어 있는지를 제발 검사해 주십시오.”

“이제 그만둘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실험실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안됩니다. 그러한 말싸움으로는 어느 분의 주장이 옳은지 판가름이 날 수 없습니다. 일단 돌아가시고 실험결과를 기다리세요.”

함께 온 형사에게 친생자 감정(親生子鑑定)에 의한 실험과정을 대충 이야기해 주고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가도록 했다. 친생자 감정이란 문제의 자식이 과연 지목된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식인지, 또는 문제의 아버지가 사실상 지목된 자식의 진짜 아버지인지를 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해 판정하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 위 사건 감정결과가 분석됐다. 혈액형과 유전자(DNA) 분석법을 적용한 실험결과, 그 문제의 아기는 남자의 자식으로 판정됐다. 그러니까 남자가 뻔뻔스럽게 거짓 주장을 한 것이다. 결국 과학적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 남자는 여자의 옛날 상관으로 이들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였다. 남자가 전화를 걸어 만난 두 남녀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백을 했다. 여하간 양쪽 가정의 파탄은 물론

두 가정은 모두 공중분해되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결국은 사회적인 손실과 그들의 불행은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위헌여부를 헌재에서 최종 결정했다.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고 가정을 보호하며, 혼인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대다수의 국민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듯 위헌판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성의과학’ 강좌를 수강하는 신세대 학생들의 간통, 불륜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찬반여부를 물었다. 그들은 아직 순수하고 젊은 신세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서양화02 - 07) 동문

대 남녀 대학생들이다. 그들 역시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쪽이 대부분이었다. 요즘 젊은 신세대 학생들 역시 성의 인식이 건강하다는 생각을 하니, 한결 마음도 놓고 미래가 밝아지는 느낌을 가져본다.

나는 20여 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부인의 불륜 내지는 바람기를 문제삼아 찾아 오는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험해 왔다. 강좌의 일환으로 내가 겪은 성에 관한 사건사례를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 어떤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박사님이시죠?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박사님께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요. 정액 검사를 해주십시오.”

“뭐요! 누구신데... 정액이라뇨! 검사는 왜 하려고 하십니까?”

“실은 제 처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그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정액이 묻어 있는지를 제발 검사해 주십시오.”

나는 도와주고는 싶었지만 정상적인 감정 의뢰도 아니고 또 자칫 한 가정을 파멸

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완강히 거절했다. 그러나 남자는 막무가내였다.

“박사님, 저희들은 밤차를 타고 지금 연구소 근처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박사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기다리겠다는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사람들을 만나 사정 이야기를 들어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럼 와보시오. 얘기를 들어 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봅시다.”

잠시 후 이들 부부가 실험실에 들어닥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다. 남자는 피로에 지쳐 초췌한 모습이었다. 부인은 그와는 반대로 혈색이 좋고 피로한 기색은커녕 매우 밝은 표정이었다. 남자는 자신을 S라고 이름을 밝혔다. 나는 S씨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실은 제 처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조그만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자식도 있습니다. 지금은 처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사업도 팽개치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식어 버려 저의 가정은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빨리 가려서 제가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벌써 3개월

증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인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제 처가 사용하는 이불과 요의 천조각이고, 저것은 아내의 밤색코트 조각을 잘라 왔습니다. 여기에 묻어 있는 백색 얼룩진 흔적은 정액이 틀림없습니다. 박사님, 잘 좀 봐주세요. 정액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조각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희고 불그스레한 물질이 얼룩져 있었다.

나는 얼핏 이 증거물이 정액이 아닐 것이라는 감이 가슴에 전해졌다. 물론 오랫동안 정액 감정을 해왔던 경험에서 얻은 판단이었다. 나는 은근히 이 증거물을 검사해 줘도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만약 정액으로 증명될 것이 분명한 증거물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검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당신 부부가 사용해 온 이불과 요에서 정액이 검출된다면 그건 S씨 당신의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아닙니다. 저는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부정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잠시 기다리라고 해 놓고, 슬그머니 이불과 요의 천조각 일부를 실험실로 옮겨 정액 반응 예비시험을 실시해 봤다. 반복 확인도 해 보았지만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

내가 예측했던 대로였다. 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S씨 부부를 불러 실험을 실시하며 결과를 직접 관찰토록 했다. 물론 정액일 경우 시약을 떨어뜨리면 서로 화학반응이 일어나 색깔이 푸른 보라색으로 변하는 정액에 들어있는 효소 검출법이었다. 실험 원리까지 설명해 주고, 대조 시험으로 진짜 정액일 경우 나타나는 현상도 보여줬다.

S씨 부부는 자신들이 가져온 증거물에 대한 실험 진행과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특히 S씨는 두 눈을 가까이 들이대고는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눈을 땀 줄을 몰랐다.

“바로 이것이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닙니까?”

S씨는 조금하듯 물었다. 그러나 그것은 색깔이 변해가는 듯 느끼는 착각일 뿐이었다.

“계속 더 보십시오. 색깔이 변하는지를... 스스로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관찰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한참 후에 S씨는 증거물에서 눈을 떼고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S씨의 처는 그저 한결같이 텅텅한 표정이었다. 어떤 부정도 없었으므로 증거물의 과학적인 실험 결과도 당연히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듯했다.

나는 S씨 부부의 표정을 살폈다. 두사람의 얼굴 표정은 금세 환하게 바뀌어 갔다. 처음 실험실에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난 3개월 동안의 고통과 긴장, 그리고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듯 허탈해 하는 표정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환하고 밝은 표정으로 다정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실험실을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다웠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중요한 사건을 해결한 것보다 더 큰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 왜 이러한 의처증 내지는 의부증 같은 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기분이 씁쓸하기만 했다.

이란 세월을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 하루종일 일하고 밤늦게 귀가합니다. 제 처는 제가 없는 낮시간을 이용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증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S씨가 내민 증거물을 검사하기 전에 그에게 물어봤다.

“만일 그 증거가 부인의 부정으로 입증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직 처의 부정한 행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처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더라도 절대로 헤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용서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 삶을 시작하듯 살겠습니다.”

나는 S씨의 각오와 결심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다면 옆에 앉아 있는 부인은 남편의 말대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 가져온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동 정

수 상

▲李相滿(수의학48-56 前인천광역시 응진군 공수의)=지난 12월 11일 제22회 경기도민회 정기총회에서 경기도민회 운영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상 수상.

▲辛旻駿(조경76-80 장원조경 사장)=지난 10월 20일 제5회 조경의 날 기념식에서 제4회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수상.

▲徐榮俊(제약학77-81 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11월 28일 과학언론인의 밤 행사에서 신문·방송 과학기자들이 뽑은 '2008 올해의 과학인'상 수상.

▲張亨碩(디자인학99-03 영화감독)=지난 11월 5일 '영화는 영화다'로 영화평론가협회가 수여하는 제28회 영화평상 신인감독상 수상.

▲都東煥(AMP 26기 대동흥업 회장·민족문화영상협회장)=지난 11월 19일 교양도서 '하늘이 내린 다섯 효자 이야기' 6천5백부를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기증한 공로로 광복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張哲浩(AIP 22기 대조전설 대

표)=지난 11월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 열린 전기안전촉진대회에서 산업포장 수상.

인 사

▲金相福(종교57-63 할렐루야교회 목사·아시아 북음주의연맹 회장)=최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세계북음주의연맹(WEA)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愼鏞廈(사회57-61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한성학원 이사장)=지난 10월 30일 독립기념관 이사장에 선임.

▲金好俊(사회61-65 前국가인권

위원회 상임위원·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24일 임기 3년의 제2기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

▲都春鎬(화학64-69 순천대 교수)=최근 대한화학회 제44대 회장(임기 2010년 1~12월)에 선출.

▲成樂寅(행정69-73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11월 24일 한국법학교수회 대의원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

▲徐玉植(동양사학69-73 前연합뉴스 편집국장·성결대 행정학부 외래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25일 한국언론재단 사

업이사에 선임.

▲金賢柱(신문76-80 前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광운대 교수)=최근 한국방송학회 제22대 회장에 선출.

▲金好太郎(HPM 11기 前광벨리 대표)=지난 10월 16일 임기 2년의 대한민국 건국회 원로원 사무총장에 임명.

▲張日碩(ALP 4기 YC BANK 회장)=지난 11월 5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새금융사회연구소 대표에 취임.

행 사

▲丁奇洙(불문47-51 한국AMO PA협회장)=최근 프랑스어 저서 'La Corée et l'Occident'(파리 Minard)의 일본어판 '韓國と西洋'(동경 彩流社) 출간.

▲趙守鎬(회화47집 한국국제서법연맹 회장·대한민국 서예문인회 원로총연합회 총재)=지난 11월 20일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전시실에서 제3회 대한민국 서예문인회 원로총연합회전 개최.

▲安亨一(성악47-50 모교 성악과 명예교수)=지난 10월 28일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2회 'Golden Voice-영원한 테너 안형일 교수와 제자들' 공연 개최.

▲丘仁煥(국어교육50-54 모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문학과문학 교육연구소장)=지난 10월 25일 서울교육청 문예영재학교에서 '나의 꿈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란 제목으로 특강.

▲金在浩(생물교육53-57 명동안과 원장·선산안과연구재단이사장)=지난 10월 23일 가톨릭대 및 인제대 석사과정 학생 5명에게 장학금 5백만원 전달.

제2회 목촌법률상

曹圭光 초대 헌법재판소장 수상

한국 공법학의 개척자인 故 牧村 金道昶(법학43-47)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목촌법률상 제2회 시상식이 지난 11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올해 수상자로는 헌법재판소 초대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

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국가 최고규범으로 정착시키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한 曹圭光(정치48졸)동문이 선정됐다.

이 상은 목촌기념사업회(회장 崔光律 법학54-58)가 매년 11월 한국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현저한 공

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상하는 법률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李康國헌법재판소장,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李石淵법제처장, 金鐵容 목촌법률상 심사위원장, 朴鎭旻 前환경부 장관, 李升煥 前그리스 대사, 崔松和 前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모교 법대 朴秉濠·成樂寅 전임 학장, 金建植학장 등 학계, 법조계 인사 90여 명이 참석했다. <變>



▲金載姪(회화56-60 한국미협 회원·서양화가)=오는 12월 17~23일 서울 관훈동 KOSA space에서 조각가인 남동생 김재현 씨와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주제로 전시회 개최.

▲李容璟(전자공학60-64 국회의원)=지난 11월 18~20일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린 IDATE 30차 회의에 참석, '인터넷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

▲權 誠(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지난 11월 7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언론중재법 심포지엄 개최. 또 21~22일 온양 팔래스호텔에서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분쟁' 주제의 세미나 개최.

▲李玉姬(기악60-64 서울튜티첼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피아니스트)=지난 11월 26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鄭致溶(작곡78-83)동문의 지휘로 서울튜티첼버오케스트라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11월 7~8일 충남 아산시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수원 시승격 60주년 '수원예술 문화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수원에술인 심포지엄 개최.

▲陳善柱(대학원62-69 충북대 명예교수·한국제임스 조이스학회 고

문)=지난 2006년 출간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서술 전략'(도서출판 동인)이 최근 대한민국의학술원 2008년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金東鎭(기악63-67 클라리네스트)=지난 12월 8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郭貞善(기악90-94 바순)·李倫定(기악90-94 오보에)·金弘博(기악00-04 호른)동문 등과 함께 세종목관합비앙상을 정기연주회 개최.

▲趙誠愛(응용미술64-68 잉킹판 화공방 대표)=지난 11월 1~30일 수원시 파장동 갤러리 카페22에서 관화전 개최.

▲朴憲烈(화학공학67-71 중앙대 교수·중앙대 힐텍 힐빙 문화연구소장)=지난 11월 13일 서울 명륜동 한성대에서 '한국 농업 선진화 전략과 힐텍'을 주제로 제4호 힐텍포럼 개최.

▲柳寅淑(응용미술68-72 화가)=지난 12월 3~9일 서울 관훈동 갤러리 쉼에서 유화작품 20여 점으로 개인전 개최.

▲康一宇(섬유공학71-75 강&강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아시아변리사회 한국 협회장)=지난 10월 18~2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변리사회 제55차 이사회에 참석, 2010년 10월 16~19

일 제주도에서 개최될 제58차 이사회 홍보.

▲玄在喜(기악72-76 세종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체임버홀에서 베토벤, 슈만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 개최.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파인트리클럽 총재·청소년보호위원장·관악회 이사)=지난 11월 1일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파인트리클럽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이날 '파인트리클럽 50년사' 발간.

▲黃仁子(대학원78-82 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장)=지난 11월 23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 강당에서 필리핀, 베트남, 몽골 출신의 다문화 가족들이 경연하는 '글로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趙泰玄(대학원79-8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위원)=최근 전북 익산 삼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아트전에 출품. 또 수필동인지 '기가 막히게 좋은 인생' 출간.

▲金俊希(국악90-94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해금수석)=지난 11월 26일 홍대 클럽 뮤지엄에서 열린 '하얀 밤(White Night)' 공연에서 해금 연주.

▲趙允敬(기악91-95 피아니스트)=지난 12월 15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조소연(기악94-98)동문과 함께 피아노 듀오 연주회 개최.

▲安眩姪(국악93-97 국악작곡가)=지난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에서 '달과 四季의 만남' 작곡발표회 개최.

▲徐允晉(기악94-98 동아대 초빙교수)=지난 12월 11일(창원 상산아트홀), 14일(서울 금호아트홀) 삼익악기 창사 50주년 기념 초청 피아노 독주회 개최.

▲薛勇洙(ACAD 53기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지난 11월 1일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우수논문의 제10회 시상식 개최.

명복을 빕니다

국제해양법 박椿浩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 박椿浩(정치50-59)재판관이 지난 11월 1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전북 남원 출신인 차재판관은 모

교 문리대 재학시절 한일간 어업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보고 40여년간 해양법 연구에 전념해 왔다.

국가간 해양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1996년 당선됐고 2005년 9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 1997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법단체인 국제법학회 회원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필례 여사와 2녀가 있다.

- ▲趙顯英(약학46-49 前동덕여대 대학원장)=지난 11월 15일 별세.
- ▲金英起(물리51-55 前전북대 자연대학장)=지난 11월 16일 별세.
- ▲黃善鎭(법학54-58 前대법원 대법관)=지난 11월 27일 별세.
- ▲崔洛天(불문56-62 前주가봉 대사)=지난 11월 4일 별세.
- ▲朴健雨(행정57-61 경희사이버대 총장)=지난 11월 17일 별세.
- ▲金曙雄(경제61-65 前서울경제신문 사장)=지난 11월 25일 별세.
- ▲李明錫(영문62-66 前대구MBC 사장)=지난 11월 5일 별세.
- ▲朱昇澤(국문63-67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지난 11월 4일 별세.
- ▲金遺腹(ACAD 4기 前국회의원)=지난 11월 20일 별세.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이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삶으로부터 배우는
인간경영

－ 崔斗衡 지음



성원 개 발
崔斗衡(행정 51-55 본회 부회장)회장이 공무원, 국영기업, 사기업체 사장 등을 거쳐 국내 최초의 건축물유지관리 전문업체를 이룩하기까지 60여 년 삶의 지혜와 경영철학이 담겨 있다.崔회장은 경영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경영인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마음을 통한 상호교류라고 말한다.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지 말고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그 바람 속을 헤쳐 나가라고 조언한다.〈이미지북刊·값13,000원〉

이종구 박사의
심장병, 고혈압, 중풍
생활습관이야기

－ 李鍾九 지음



캐나다 앨버타대 명예교수인 李鍾九(의학 51-57 이종구심장클리닉 원장) 동 문 이 2001년 이후 발표된 최신 의학정보를 정리해 심장병, 고혈압, 중풍, 당뇨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생활습관을 설명한 책.이 책에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심장관막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은 물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장 관련 질환의 원인에서 증상과 진단방법, 치료법까지 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소개했다.부록으로 생활습관과 건강, 한국인 사망원인의 변화를 함께 담았다.〈의학사광刊·값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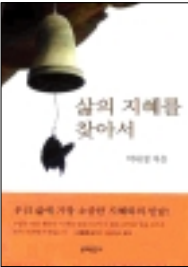
文學精神
－ 金守經 발행

지난 1986년 불세출의 시인 末堂 徐廷柱선생이 월간 형태의 순수문예지로 창간했다가 1988년 휴간에 들어갔던 문학정신을 金守經(치의학58-63)동문이 발행인을 맡아 20년만에 2008년 가을호로 재창간했다.



미당 추모시와 추억담, 그리고 추억 속의 사진 등을 담아 서정주 추모특집으로 재창간하는 문학정신은 오랫동안 동어반복의 늪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는 우리 문학에 새로운 강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문학에 깃든 본연의 정신문화를 드높이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문학정신사刊·값10,000원〉

삶의 지혜를 찾아서
－ 朴來正 지음



홍익대 화학공학과 교수로 지낸 朴來正(농화학 60-64)동문이 동서양의 종교와 고전에서 가려낸 삶에 중요한 지점이 되는 유명한 명구들을 자신의 경험과 함께 엮은 수필집.저자의 오랜 독서를 통해 우려낸, 우리가 살아가면서 곱씹어볼 수 있는 이야기 모음집이다.이 책의 많은 부분의 내용들은 저자가 오랫동안 종교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연관하여 보고 있으며, 또 이러한 생활의 지혜들을 세계의 성현들은 각각 어떠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였는가를 보여준다.〈문예출판사刊·값10,000원〉

생명 너머 삶의 이야기
－ 方在旭 지음



충남대 생물학과 方在旭(생물교육 68-75)교수가 펴낸 생명에세이집.‘생명의 이해’를 주제로 생명의 본질 유전자, 성과 유전, 유전병 숙명인가 등의 이야기로 시작해 축복의 메시지로 매김한 ‘탄생生’에서는 생명의 서곡 정자와 난자의 만남, 불임의 원인과 치료 등을 다뤘다.사는 삶 그리고 열린 삶을 주제로 한 ‘노화老’에서는 노화의 메커니즘, 장수의 비결 등을 소개했다.〈충남대출판부刊·값12,000원〉

과학기술 글쓰기
－ 姜明求·金熙濬 외 지음

모교 기초교육원 姜明求(대학원 78졸)원장, 화학부 金熙濬(화학 66-70)교수, 재료공학부 李京雨(금속공학80-86)교수, 영산대



鄭允碩(철학 83-87)교수 등 10여 명이 참여한 과학기술 글쓰기의 매뉴얼.이 책은 지난 4년간 모교 과학기술 글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결과가 반영돼 있다. 또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글쓰기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참고 자료를 검색하고 바르게 인용하는 방법, 참고문헌과 초록을 작성하는 방법, 고쳐 쓰기,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방법까지 과학기술 글쓰기의 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서울대출판부刊·값15,000원〉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 尹汝卓 외 지음



모교 국어교육과 尹汝卓(국어교육 74-80)교수, 경인교대 鄭鉉璇(국어교육 89-93)교수 등이 향후 국어 교육은 매체언어(media language)를 통한 국어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또 현대사회 발전에 따른 소통 개념의 변화는 초·중등학교에서 이뤄지는 국어교육에서 매체교육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설명한다.이 책은 2006년 모교 국어교육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뤄진 ‘매체언어 교육의 목표와 방법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획됐다.〈서울대출판부刊·값14,000원〉

알고 보면 재미있는
경제원리
－ 洪起玄 지음



모교 경제학부 洪起玄(경제 76-80)교수가 알고 보면 재미있는 알쏭달쏭한 경제현상을 쉽게 풀어놓았다.부자들은 왜 로또를 잘 사지 않는 것일까? 기업가와 사기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성경말씀은 타당한가? 시간은 왜 돈이 될까?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경제원리로 설명한다.2천년 경제사상의 역사, 2백여년 경제학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발상을 한 학자들의 주요 개념을 뽑아 쏙쏙 이해되도록 했다.

공 연

鄭至惠 피아노독주회
－ 12월 28일 영산아트홀

피아니스트 鄭至惠(기악84-88 피아노 두오협회 이사)동문(사진)이 12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 영산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선화예고, 수원대, 숭의여대 등에 출강하고 있는 鄭동문은

이날 알베니즈, 베토벤, 이종희 작품을 선보인다.〈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그리고 단지 경제라는 한 가지 시각이 아니라 철학, 심리학, 생물학, 경영학에 걸친 통합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서울대출판부刊·값10,000원〉

소비자와 법의 지배
－ 余禎星·崔鍾元 외 공편



모교 소비자동학부 余禎星(가정관리83졸)교수, 행정대학원 崔鍾元(경제78-82)교수, 법학부 張勝和(사법81-85)교수 등이 우리나라의 소비자문제들이 시정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미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제들, 정책과정 그리고 정책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이 책은 우선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그리고 기타 소비자거래 관련 법제의 입법배경과 체계, 문제점과 과제 등을 설명했으며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단체의 역할, 그리고 소비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다뤘다.〈서울대출판부刊·값24,000원〉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 편찬위원회 편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朴孝根(농학 59-63)명예교수가 편찬위원장을 맡아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채소의 탄생 이야기를 담았다.이 책은 채소종자 산업의 발달과정, 채소 품종 개발의 경제적 효과, 채소 품종 발달사,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천, 채소종자 산업의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무, 배추, 브로콜리, 고추, 토마토, 가지, 수박, 오이, 참외,

경제학 프레임
－ 李謹雨 지음



매일 경제신문 경제부 李謹雨(경제 91-97)기자가 신정아스캔들, 현대차 노조 파업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정치·경제·문화·교육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李동문은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필치를 발휘해 가격의 나비효과, 거미집 이론, 공유지의 비극, 도박사의 확률게임 등 경제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 경제개념과 경제학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회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며 한국이 처한 현실을 시장의 틀로 새롭게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웅진윙스刊·값13,000원〉

바른생활 나이트쇼
－ 강혜정 옮김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 레슬리 슈너의 장편소설을 강혜정(동양사학91-96)동문이 우리말로 옮겼다.이 책은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젊고 발랄한 여성의 삶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의외성,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불가사의함, 정직과 우정의 소중함, 부모에 대한 사랑 등을 다루고 있다.〈행간刊·값11,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 △강신호(의학46-52)
- △곽영필(토목공학56-60)
- △구평희(정치학47-51)
- △김상하(정치학45-49)
- △김은중(경제학59-63)
- △김정식(통신공학48-56)
- △김중섭(사회사업66-70)
- △김형주(토목공학46-50)
- △신창재(의학72-78)
- △오동영(조선항공54입)
- 김찬숙(치의학56-60)
- △윤세영(행정학56-61)
- △이준용(경제학56-60)
- △정계영(상학61-66)
- △정팔도(AIP 1기)
- 이지행
-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 △김주진(법학54입)
- ◆3억원
- △김병순(AMP 4기)
- 이지호(의학77-83)
- △이길여(의학51-57)
- △정성규(화학공학48-52)
- △조기호(화학교육54-58)
- 이영자(생물교육56-60)
- ◆2억원
- △남정현(건축학57-61)
- △이종기(경영학69-73)
- △장학순(토목공학46-50)
- △조필제(조선항공46-50)
- ◆1억5천만원
- △故김도창(법학43-47)
- 목춘5부자
- ◆1억2천만원
- △엄병운(외교학60-64)
- ◆1억1천만원
- △성백전(토목공학52-56)
- 김인순(화학공학54-58)
- △수학과동창회
- ◆1억30만원
- △박성훈(기계공학58-63)
- ◆1억원
- △강순걸(법학54-58)
- △곽동현(법학61-65)
- △김두희(물리학52입)
- △김문현(상학58-64)
- △故김영경(기계공52-56)
- △김정철(건축학52-56)
- 김정식(건축학54-58)
- △김창식(전기공학53-57)
- △나공목(상학56-61)
- △남상용(건축학52-57)
- △노인환(경제학54-58)
-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 △류중희(기계공학53-57)
- △명태현(기계공학46-50)
- △박실상(AIC 9기)
- △박희백(의학51-57)
- △서정화(법학51-55)
- △故손치무(대학원70졸)
- △안성철(행정학58-63)
- 손윤숙
- △故양은숙(간호학51-54)
- △故오응현(섬유공67-71)
- 추경옥
- △오홍조(치의학56-61)
- △우인성(기계공학58-62)
- △유상부(토목공학60-64)
- △이금기(약학55-59)
- △이상범(법학53-57)
- △이수범(행정학56-60)
- △이예식(약학46-49)
- △이정상(상학59-65)
- △이준행(섬유공학48-54)
- △이지호(의학77-83)
- △이해원(행정학51-55)
- △장세일(전기공학59-63)
- △장중환(의학69-76)
- △전동용(수의학52-56)
- △정운환(임학56-62)
- △정중시(화학공학72-76)
- △조병우(섬유공학59-64)
- △지원철(축산학73-77)
- △최두형(행정학51-55)
- △최상홍(기계공학54-58)
- △최희장(섬유공학58-64)
- △홍상옥(원예학83-87)
- △보건대학원동창회
- ◆8천만원
- △미술대학동창회
- ◆6천만원
- △김윤택(경대원68-70)
- △화학과동창회
- ◆5천30만원
- △이종현(경제학59-65)
- 신갑순
- ◆5천10만원
- △박남식(SGS 2기)
- ◆5천만원
- △강인구(수의학59-64)
- △공대식(기계공학56-60)
- △김정희(약학57-61)
- △김종기(생물교육51-55)
- △김중서(경제학58-63)
- △김중현(경제학55-59)
- △류재명(AMP 34기)
- △마국철(공업교육68-72)
- △박명운(보대원74-76)
- △박주탁(무역학69-74)
- △손일근(법학51-64)
- △안 훈(수의학53-57)
- △오인석(행정학58-62)
- △유중해(법학50-54)
- △이도경(농학56-63)
- 이찬진(기계공학84-89)
- △이순석(약학61-65)
- △이승준(섬유공학56-60)

- 이청원(자원공학67졸)
- △이운주(의학81-87)
- 오지은(인류학83-87)
- △이원규(농생물학58-63)
- △이재원(상학55-59)
-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 △이형도(화학공학61-67)
- 박효순(영어교육66-70)
- △정대영(경제학51-55)
- △정재봉(사회사업60-64)
- △지창수(상학55-59)
- △하권익(의학57-63)
- △하상완(치의학64-70)
- △허병하(상학58-62)
- △홍예표(치의학65-71)
- △황해근(토목공학54-60)
- 故이금옥
-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 △농대 그린장학회
- △농대 일산회
- △한우리SJM
- ◆3천60만원
- △원정수(건축학53-57)
- 지 순(건축학54-58)
- ◆3천만원
- △고원호(기계공학48졸)
- △박홍일(영어교육60-64)
- △심형윤(토목공학52-56)
- △유석홍(무역학61-65)
- 박영희(기약70졸)
- △이경택(섬유공학57-61)
- △이광식(약학66-70)
- ◆2천만원
- △강학순(기계공학64-69)
- △김원일(건축학61-65)
- 최미혜(성악66-70)
- △김재백(약학52-56)
- △서병륜(농공학69-73)
- △송명호(자원공학59-65)
- △윤세극(경제학45-51)
- △조갑주(경제학58-63)
- 정정영(불어불문62-66)
- △최정길(금속공학52-56)
- ◆1천5백만원
- △김철순(조경학76-83)
- △치불회
- ◆1천2백만원
- △강웅선(치의학78-84)
- △심영보(의학55-61)
- △안동일(법학59-63)
- △오상호(전기공학48-55)
- △이내원(화학교육58-62)
- △이재철(법학70-77)
- ◆1천1백50만원
- △천남중(광산학65-69)
- ◆1천1백30만원
- △신면우(의학50졸)
- ◆1천1백만원
- △김상수(자원공학73-77)
- 김태훈(건축학02-07)
- △정해남(법학72-76)
- ◆1천80만원
- △서병태(의학54-60)

- △조내규(약학58-62)
- ◆1천70만원
- △김정범(치의학60-66)
- ◆1천60만원
- △박준옥(약학55-59)
- ◆1천30만원
- △심이택(화학공학57-63)
- △이영필(항공공학66-71)
- △이형하(법학74-78)
- △지현택(치의학43-47)
- △허성길(경제학60-64)
- ◆1천만원
- △강신주(사회교육51-55)
- △강신혁(문리66-73)
- △강용현(법학71-78)
- △강행언(토목공학61-65)
- △권동은(FIP 4기)
- △권혁용(불어불문59-63)
- △금진호(법학50-58)
- △김 철(기계공학64-68)
- △김기춘(법학58-62)
- △김두만(상학59-63)
- △김미령(약학74졸)
- △김백준(수학62-66)
- △김병린(토목공학55-59)
- △김상호(법학72-76)
- △김선양(중어중문84-88)
- △김연호(화학공학71-75)
- △김영갑(법학74-78)
- △김영석(경제학60-66)
- △김영재(공업화학77-81)
- △김원배(동물학55-60)
- △김윤중(약학64-71)
- △김은식(국사학73-80)
- 윤영옥(생물교육72-76)
- △김일섭(경영학64-69)
- △김재범(산업공학74-78)
- △김재호(생물교육53-57)
- △김주환(토목공학57-61)
- △김진규(기계공학61-66)
- △김찬욱(기계공학55-59)
- △김철수(법학52-56)
- △류태환(상학48-54)
- △문대원(경영학71-75)
- △문명국(기계공학73-75)
- △문성훈(식품공학86-92)
- △박덕철(기계공학57-61)
- △박명학(영어교육61-65)
- △박중국(농화학57-63)
- △박준우(의학75-81)
- △박진희(무역학76-80)
- △박창우(경제학80-84)
- △백사익(채광학40-42)
- △변상현(의학51-57)
- △서계숙(기약56-60)
- △석학진(상학58-64)
- △설동섭(축산학53-57)
- △신방호(경제학67-71)
- △신윤식(사학55-59)
- △안경상(행정학57졸)
- 김정애(가정교육54-58)
- △양배덕(전기공학57-61)
- △양성철(정치학58-64)

- △엄기영(사회학70-74)
- △오병제(AMP 21기)
- △오용섭(임학60-66)
- △유희춘(상학49-55)
- △윤영석(경제학58-64)
- △윤희진(축산학63-67)
- △이강수(상학51-55)
- △이경호(행정학61-65)
- △이계우(행정학58-63)
- △이동철(토목공학78-82)
- △이병재(경대원69졸)
- △이병형(화학67-71)
- △이상현(정치학64-68)
- △이석운(영어영문50졸)
- △이인기(지질과학62-66)
- △이재후(법학58-62)
- △이전구(임학60-64)
- △이종웅(기계공학65-69)
- △이진규(치의학78-84)
- △이창기(약학55-59)
- △이창원(법학55-60)
- △장무환(경제학45-51)
- △장세권(농공학70-76)
- △장익용(기계공학54-58)
- △장지준(의학70-77)
- △장휴동(농경제학59-63)
- △조길웅(HPM 14기)
- △조정훈(자원공학75-81)
- △최남해(상학52-56)
- △최선집(사회교육75-79)
- △최승철(기계공학66-70)
- △최준기(조선항공57-61)
- △추재옥(의학63졸)
- △표상기(원자력공61-65)
- △하영기(정치학44-48)
- △한규택(원자핵공73-77)
- △한창섭(정치학57-62)
- △故함인영(기계공학48졸)
- △함정호(행정학53-57)
- △허 선(정치학64-68)
- △홍순자(독어교육61-65)
- △황경로(AMP 11기)
- △전북지부동창회
- △간호대학동창회
- ◆9백만원

- △김상복(종교학57-63)
- ◆7백만원
- △정경모(행대원65-67)
- ◆6백만원
- △김현산(법학54-58)
- △문규철(응용화학69-73)
- ◆5백만원
- △박수복(농생물학56-61)
- △신박일(약학60-64)
- △윤성근(공업교육74-78)
- △윤순녕(간호학69-73)
- △윤익석(축산학49-53)
- △이윤경(간호학65-69)
- △이현구(AMP 52기)
- △조상근(행정학69-73)
- △법대37회 동기회
- △FIP동창회(김명도)
- ◆3백30만원
- △김석만(화학57졸)
- ◆3백10만원
- △한규범(AMP 42기)
- ◆3백만원
- △강영현(농경제학69-76)
- △권혁창(지구과학69-76)
- △김영수(법학60-64)
- △김재율(경성법전39졸)
- △안재동(상학60-67)
- △이동수(건축학61-66)
- △이성기(행대원63-65)
- △이재식(교육학75-79)
- △임채주(경제학55-59)
- △정영채(수의학56-60)
- △조원환(AMPP 6기)
- △하재규(농학53-57)
- ◆2백50만원
- △홍순명(축산학68-72)
- ◆2백30만원
- △강충원(전기공학59-65)
- △이준형(GLP 11기)
- ◆2백만원
- △나정우(농공학72-77)
- △박대원(정치학46-50)
- △성기학(무역학66-70)
- △오복동(법학57-63)
- △윤정일(교육학62-66)



△이경렬 (응용미술69-73)
△이원태 (농경제학64-68)
△이종순 (법학57-61)
△이현조 (철학52-57)
△이흥구 (법학53입)
△이희호 (교육학46-50)
△임규운 (행정학53-57)
△정용인 (법학60-64)
△정주석 (법학61-65)
△최창식 (의학54-60)
△한영국 (경제학50-54)
△허영호 (전자공학71-75)
△홍석준 (사회학73-77)
△황남주 (물리학87-92)
△황선용 (사회교육57-61)
△황선대 (법학66-70)
△황의인 (법학74-78)
◆1백80만원
△노 영 (의학70-77)
◆1백60만원
△인효석 (농공학80-87)
◆1백50만원
△김건호 (수리학70-74)
△김해경 (생물교육70-74)
△윤옥영 (수학58-61)
△이기남 (수학67-71)
△이진호 (화학공학85-89)
△정성진 (법학58-63)
△조귀장 (사법학86-90)
·김주영 (지리학92-97)
△조현래 (대학원75입)
◆1백30만원
△김영균 (법학57-59)
△김진익 (법학55-60)
△문일환 (치의학65-71)
△송진해 (공업교육63-72)
△이용우 (공업교육64-68)
△이종복 (응용미술62-66)
△이태형 (상학59-63)
△임한조 (물리학67-71)
△정휘위 (법학62-66)
△조병철 (섬유공학59-65)
△최동식 (법학76-80)
△최명재 (상학48입)
△현천욱 (법학72-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 (농업교육63-67)
◆1백20만원
△강효식 (치의학57-61)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김영도 (축산학68-75)
△김주현 (의학65-71)
△김진원 (건축학68-72)
△나명훈 (의학76-83)
△이갑노 (의학65-71)
△이계홍 (농공학56-62)
△이상건 (섬유공학74-78)
△이정우 (AMPFRI 17기)
△이창건 (전기공학49-54)
◆1백10만원
△김기섭 (정치학69-73)
△김기영 (ACAD 49기)
△김도현 (대학원74-76)
△김지호 (화학공학55-59)
△명동근 (경제학45-52)
△박영원 (지리학74졸)
△백 철 (상학56-61)
△백낙운 (독어독문56-60)
△변재용 (토목공학75-81)
△원우현 (행정학61-65)
△유종일 (신대원72-74)
△유해덕 (법학53-57)
△이경보 (토목공학46-50)
△이두현 (행대원74졸)
△이명훈 (농경제학69-73)
△이정자 (국어국문50졸)
△이종팔 (경영학76-80)
△전영철 (미학53입)
△조준래 (AMPFRI 12기)
△최연균 (중어중문67-71)
△허신행 (농경제학62-66)
△홍성완 (토목공학62-66)
◆1백5만원
△장경만 (의학80-87)
◆1백9천원
△최인갑 (금속공학57-62)
◆1백만원
△강구선 (광산학63-67)
△강규석 (물리교육58-62)
△강택수 (GLP 8기)

△강성현 (치의학69-75)
△강영복 (상학51-55)
△강원일 (행정학59-63)
△강정일 (농경제학64-68)
△강종표 (외교학76-83)
△강홍섭 (화학공학59-63)
△고 건 (정치학56-60)
△고광우 (행정학53-58)
△고병우 (경제학52-56)
△고호근 (AMP 58기)
△곽 승 (화학공학59-63)
△구재철 (의학78-84)
△권광중 (법학61-65)
△권순철 (전자공학83-85)
△권이혁 (의학41-47)
△김교성 (전기공학51-55)
△김국일 (토목공학63-68)
△김규복 (법학69-73)
△김규형 (의학53-57)
△김기수 (행정학47-51)
△김노수 (섬유공학45-52)
△김달식 (법학53-57)
△김덕영 (토목공학45-47)
△김덕원 (수리학50-54)
△김덕중 (외교학71-75)
△김도연 (행정학58-63)
△김동찬 (생물교육51-55)
△김명자 (화학62-66)
△김방연 (상학52-56)
△김상원 (농경제학52-56)
△김석건 (농경제학50-55)
△김석기 (행정학64-68)
△김석준 (기계공학72-76)
△김승권 (기계공학68-72)
△김연호 (영어교육67-75)
△김영기 (법학54-58)
△김영배 (농공학78-85)
△김영수 (경제학58-62)
△김영일 (법학60-64)
△김영재 (법학57-62)

△김용식 (건축학70-74)
△김용운 (치의학62-68)
△김용찬 (농화학57-61)
△김우동 (계산통계72-79)
△김유경 (SPARC 2기)
△김윤재 (상학54-58)
△김익모 (AIP 23기)
△김인규 (정치학69-73)
△김인중 (법학56-60)
△김일환 (천문기상64-72)
△김재락 (법학78-82)
△김정일 (금속공학58-64)
△김종국 (농화학63-70)
△김종욱 (경제학58-62)
△김주용 (전기공학58-63)
△김준말 (영어교육55-59)
△김중기 (경제학54-58)
△김진우 (의학54-58)
△김진호 (법학57-61)
△김창국 (법학56-60)
△김창순 (경성여사범43입)
△김태현 (제약학71-75)
△김태홍 (화학교육71-79)
△김풍오 (원자력공68-72)
△김학균 (의학51-55)
△김현채 (법학56-61)
△김형기 (불어교육72-76)
△김형욱 (AIP 37기)
△김형진 (기계공학51-55)
△김호룡 (법학48-52)
△김홍종 (수학74-78)
△김화중 (간호학63-67)
△김환수 (법학52-56)
△김효종 (법학61-65)
△김후란 (가정교육53입)
△나도선 (의학67-71)
△노승행 (법학58-63)
△류종묵 (상학59-65)
△류철호 (토목공학67-71)
△마인경 (지리교육60졸)

△문광순 (광산학60-64)
△문창국 (정치학68-72)
△박국양 (의학75-81)
△박석흥 (불어불문63-67)
△박성숙 (의학65-71)
△박성철 (법학75-79)
△박순억 (치의학66-72)
△박순호 (AMP 43기)
△박승균 (조선항공63-67)
△박승용 (영어교육76-80)
△박양수 (영어교육55-59)
△박영숙 (CHCN 3기)
△박영철 (AMP 40기)
△박인원 (의학76-83)
△박재형 (의학66-72)
△박종찬 (공업교육71-76)
△박종철 (물리학61-66)
△박준서 (법학58-64)
△박해룡 (상학58-63)
△박향숙 (응용미술58-62)
△박흥일 (영어교육60-64)
△배기선 (AIP 25기)
△배상경 (경제학56-61)
△배승환 (기계공학58졸)
△배영한 (상학49-58)
△백형배 (화학공학47-53)
△변영삼 (금속공학77-81)
△변중문 (공업교육72-76)
△서광벽 (재료공학73-77)
△석준형 (물리학67-71)
△손완주 (화학공학55-59)
△손원규 (농업교육64-68)
△송병락 (경제학59-63)
△송사일 (농공학80-84)
△송인상 (경성고상35졸)
△송종환 (외교학64-68)
△송호룡 (AIC 19기)
△신명중 (법학80졸)
△신수정 (기약59-63)
△신용삼 (경영학73-77)

△신원식 (행정학57-61)
△신정균 (농경제학54-58)
△신필재 (의학55-59)
△신혜순 (가정교육47-51)
△신희명 (물리교육49-54)
△신희섭 (의학68-74)
△심장수 (법학70-74)
△심재갑 (행정학52-56)
△심한배 (공업화학71-76)
△안재환 (공예92-04)
△안치득 (전자공학76-80)
△안휘준 (고고인류61-67)
△양해준 (식품공학82-86)
△양호석 (농화학57-63)
△염영섭 (화학66-70)
△염준호 (기계항공95-99)
△여윤관 (금속공학53-57)
△오경화 (의류학81-85)
△오세종 (경제학61-65)
△오윤덕 (행정학61-65)
△오인석 (전자공학57-62)
△오태환 (법학53-57)
△우병규 (정치학51-55)
△우세홍 (생물교육60-65)
△우완식 (경제학57-61)
△우종호 (중어중문60-64)
△우효섭 (토목공학72-76)
△유위종 (농경제학72-80)
△유제운 (조선항공51졸)
△유필상 (전기공학66-73)
△윤근환 (농학50-54)
△윤용철 (경영학83-88)
△윤용혁 (독어교육60-64)
△윤원진 (HPM 6기)
△윤재석 (화학교육71-75)
△윤정철 (의학59-65)
△윤정혜 (화학교육59-63)
△윤충섭 (농공학55-61)
△윤홍식 (물리교육56-60)
△이경재 (화학59-63)
△이계관 (의학70졸)
△이광진 (법학77-81)
△이규호 (의학60-65)
△이근수 (신대원69졸)
△이기봉 (교육심리54-58)
△이기준 (경제학55-59)
△이기춘 (가정교육61-65)
△이돈구 (입학65-69)
△이동규 (천문기상65-74)

△이병목(의학54-60) △이병일(농학57-63) △이병주(의학61-67) △이삼휘(농화학66-70) △이상욱(경영학86-90) △이상필(치의학70-76) △이석원(AIP 36기) △이성호(농공학71-75) △이승관(금속공학64-71) △이승구(계산통계75-79) △이승립(국어교육66-70) △이영상(상학51-55) △이영상(상학59-64) △이용희(간호학75졸) △이우연(정치학45-49) △이의갑(영어교육70-75) △이인혁(섬유공학54-58) △이일훈(상학55-60) △이장무(기계공학63-67) △이재원(기약53-57) △이재원(법학77-81) △이정국(토목공학62-66) △이정우(독어교육64-71) △이정인(광산학59-63) △이종욱(의학57-63) △이주한(역사교육53-57) △이중환(의학51-57) △이진방(경영학67-71) △이창호(기계공학55-61) △이철영(상학63-68) △이철주(상학59-65) △이충웅(통신공학54-58) △이학숙(회화54-58) △이현식(회화73-78) △이현재(경제학48-53) △이형균(정치학59-64) △이형우(수의학51-55) △이호인(응용화학66-70) △이희숙(영어교육61-65) △임광환(농경제학55-59) △임미영(회화77-81) △임승빈(건축학67-71) △임이균(약학61-65) △장권봉(응용미술56-62) △장삼진(화학공학51-55) △장성원(영어교육57-61) △장원갑(기계공학63-67) △장윤석(법학68-72) △장찬기(HPM 8기)	△장철식(섬유공학49-55) △장해창(법학74-78) △장혜실(성악69-73) △전병일(영어교육66-73) △전정구(경제학51-56) △전종갑(천문기상64-68) △전준수(토목공학61-65) △전팔근(영어교육47-52) △정광섭(상학66-74) △정광현(독어교육71-78) △정명희(의학65-71) △정민섭(임학59-63) △정병일(독어독문78졸) △정병해(정치학49-53) △정상조(행정학57-62) △정소성(불어불문64-69) △정완호(생물교육58-63) △정우식(항공공학80-84) △정웅진(상학63-67) △정원식(교육학48-54) △정은구(법학58-64) △정정길(행정학61-65) △정효섭(사회학59-65) △정흥숙(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무제(사대원65-67) △조성근(행대원61졸) △조영찬(중어중문74-78) △조완규(생물학48-52) △조장환(농학53-60) △조현래(사회사업73-77) △지상구(약학54-58) △지철근(전기공학45-51) △진성박(치의학75-81) △진영춘(토목공학67-74) △진홍일(외과학62-66) △차원갑(화학공학48-53) △최 연(섬유공학68-72) △최병순(화학교육69-74) △최병주(생물교육56-60) △최우철(의학82-88) △최종덕(물리학52-56) △최종운(의학77-83) △최창신(약학61-65) △최항순(조선공학65-70) △최효열(기약73졸) △탁미선희(치의학76-82) △하두봉(대학원56-58) △한 영(치의학79-85)	△한정섭(건축학48-52) △한철주(의학78-84) △함종한(농업교육63-70) △허정국(치의학55-59) △현덕성(약학66-70) △현임중(상학56-60) △홍상희(응용물리65-72) △홍성오(생물교육50-54) △홍순겸(AIP 5기) △황성재(법학72-76) △황승기(지구과학69-76) ◆80만원 △김재현(경제학69-73) △박남훈(외과학68-75) △서병규(행대원88-92) △어 당(섬유공학68-72) △우두현(상학61-67) △유승규(기계설계76-80) △이인재(지질과학64-72) △장영일(치의학64-70) △정상병(행정학68-72) ◆70만원 △서유현(의학67-73) △이병효(공업교육63-67) △이윤하(제약학77-85) △하순봉(독어교육60-64) ◆60만원 △김신원(응용화학64-72) △부영욱(HPM 13기) △손두식(임학57-63) △안임수(영어교육65-69) △안재휴(광산학52-56) △안태준(기계공학83-91) △여인철(조선공학75-79) △유종상(중어중문66-70) △이범구(물리학69-73) △이용팔(HPM 13기) △이정구(의학59-65) △이찬구(상학56-61) △이현구(화학공학58-62) △정대봉(작곡72-80) △조달호(AMP 7기) ◆50만원 △강 민(금속공학70-74) △강규범(AMP 62기) △강승호(수학교육67-71) △강윤걸(기계공학53-57) △강인식(농공학79-83) △강일우(섬유공학71-75)	△강종호(농학60-64) △곽소진(신대원70졸) △곽연구(AMP 34기) △권기술(AMP 9기) △김 농(토목공학69-76) △김 신(경영학75-79) △김건중(정치학66-70) △김공환(행대원68졸) △김기석(법학59-64) △김남석(기계공학72-79) △김병관(농공학76-80) △김봉균(국어교육60-64) △김세겸(농공학59-63) △김수학(물리학53-57) △김순철(국사학75-82) △김용주(화학공학73-77) △김용진(대학원80졸) △김정근(수의학50-59) △김정우(상학67-71) △김정욱(금속공학58-64) △김종호(SGS 4기) △김지영(식품영양69-73) △김진국(정치학78-85) △김차서(AMP 19기) △김초일(식품영양78졸) △김형원(사회교육65-72) △남시욱(정치학54-58) △남중희(잡사학56-60) △류재택(역사교육66-73) △문학모(경제학58-64) △박 찬(정치학75-79) △박건호(상학59-63) △박순철(사법학83-87) △박시우(제약학69-73) △박양세(약학48-52) △박용희(상학53-57) △박일재(화학공학78-82) △박철홍(AMP 51기) △반성환(농경제학50-55) △배기성(독어독문68졸) △부경생(농생물학60-64) △손문자(응용미술62-66) △승익상(의학61-67) △신동우(언어학71-75) △신정택(AMP 48기) △신철영(기계공학70-78) △신한우(사회교육50-55) △심문석(조소61-65) △양이훈(물리학65-74)	△양홍룡(영어교육71-79) △오규원(행정학65-69) △오병권(조소66-70) △오자복(행대원82졸) △오제국(정치학75-79) △오진환(법학75-79) △우경자(가정교육61-65) △위정일(의학63-69) △유석기(경제학57-61) △유성삼(기계공학59-65) △유창용(의학82-88) △윤 문(광산학61-67) △윤 백(기계공학78-82) △윤석용(채광학50-54) △윤영출(응용미술82-86) △이강소(회화61-65) △이경국(농학78-82) △이근석(산업공학72-76) △이만섭(치의학57-61) △이상준(기계공학76-80) △이상환(경제학59-63) △이신기(농학58-64) △이육현(제어계측85-89) △이은주(간호학90-94) △이찬영(상학55-59) △이춘구(생물교육54-58) △이춘배(의학83-89) △이평우(불어불문48-56) △이형지(상학67-71) △이홍서(농학52-56) △인정현(법학54-58) △임병주(금속공학52-56) △임성규(금속공학68-72) △임성규(법학76-80) △장낙순(SGS 10기) △장병규(섬유공학54-60) △장순근(지질과학65-69) △장희수(AMP 45기) △정성호(사법학81-85) △정이조(ACAD 48기) △정인조(금속공학71-75) △정태원(농경제학57-61) △조남혁(섬유공학57-61) △조덕찬(상학53-57) △조수호(회화47임) △조영옥(가정교육58-62) △조용철(종교학64-68) △주종남(기계공학75-79)	△채경옥(경영학86-90) △채규대(경제학56-60) △채기원(수학53-59) △채방은(기계공학65-70) △최동수(경영학65-70) △최병선(조선항공60-64) △최순철(치의학73-79) △최운열(경영학70-74) △최은규(국어교육78-82) △최창호(사법학84-88) △최현수(전기공학76졸) △최홍락(경제학57-61) △한득주(행정학59졸) △한정길(농생물학63-70) △함준표(경제학79-86) △홍석주(경영학72-76) △홍선표(기계공학53-57) △황건호(경영학70-74) △황인경(식품영양70-74) △황현익(교대원65졸)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1월 21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30만원 △김장연(공업화학76-80) △오병남(미학59-63) △정기인(영어영문60-64) △조상순(재료공학72-76) ◆20만원 △박원규(농공학60-64) ◆11만원 △현익환(전기공학82-86) ◆10만원 △강희신(화학공학85-89) △김나나(식품영양85-89) △김운호(경영학88-92) △김인기(임학60-64) △김혜선(가정교육59-63) △노문희(가정교육59-63) △송수영(전기공학51-55) △양배근(금속공학82-88) △이홍근(경영학70-74) △조우현(행정학72졸) (이상 2008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회 장 단

△회 장 林光洙=5백만원
△상임부회장 孫一根=1백만원
△부회장 李世中=50만원
△부회장 丁海昌=50만원
△부회장 辛鉉雄=50만원

관 악 회

△이사 朴明潤=30만원

상임이사

△金基炳 恒대원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구자희 법대77
△권인식 상대68 △권종규 농대67
△김종일 環院84 △김준말 사대55
△김차서 AMP19 △류건상 경영88
△백태진 의대74 △송광엽 치대75
△오병갑 인문73 △윤주선 SGS4
△이두현 行院74 △이춘구 사대54
△장혜웅 미대69 △전병환 공대64
△최영집 大院75 △하용성 농대61

〈일반〉 △강경일 공대75
△강명구 공대89 △강신영 치대73
△권오영 AMP64 △김정래 경영72
△김한기 경영83 △김형섭 공대65
△김호태랑 HPM11 △박연수 사대68
△손희현 경영01 △신일산 AMFR14
△신정훈 경영90 △안홍숙 사대62
△유제운 공대51 △이상봉 자연94
△이은미 자연83 △이정우 사대57
△이종면 사대56 △임명규 인문86
△장석진 경영92 △장청순 의대54
△정승용 大院80 △정재윤 공대83
△정진욱 사회93 △조은영 의대01
△허삼구 AFB7

이 사

◆인문대 △김병철76 △김종남74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08년 9·10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8.8.9.~11.19)·일반(08.8.9.~11.19)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학인시 졸업년도)－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민준기79 △우득정75 △유성식82
△유영일76 △정원섭85

◆사회대 △구성재80 △금춘수72
△김성식77 △김충환73 △김태휘91
△민선식78 △박재홍86 △손광락74
△안정근72 △원진영84 △유일호75
△이덕창84 △이두희77 △이철희83
△임유철84 △임준승76 △정광호84
△정봉교72 △조영일77 △최병훈72
△최점배82

◆자연대 △김철호74 △김형찬85
△이도원71 △이동환77 △이명균76
△이은용72 △임규호73

◆간호대 △김장연79 △남은숙75
◆경영대 △권용기75 △김석주80
△남진웅76 △박남규84 △박종완71
△서태환73 △우기종75 △원효성79
△이환무76 △정기호78

◆공대 △강선재76 △강준호85
△강창렬79 △계명식53 △고갑석70
△곽정석50 △국천표60 △권동일75
△김건희69 △김광옥56 △김규갑57
△김동원78 △김명린61 △김명진78
△김병길64 △김상기77 △김성동75
△김영남61 △김영수58 △김영중76
△김왕신73 △김용원70 △김장연76
△김종석77 △김종집71 △김종철76
△김주완70 △김주홍47 △김태준57
△김풍오68 △김현수77 △남장수64
△노병환76 △노흥규66 △박근통61
△박봉규62 △박상호76 △박상훈73
△박성규71 △박승훈72 △박황호65
△배상기67 △백상엽86 △백영학49
△변대규79 △부장렬77 △선희복77
△성대경77 △송관호73 △송길호70
△송재협69 △송중호76 △신희승71
△심한배71 △안건혁67 △안홍섭75
△여인갑64 △오세기64 △오세용73
△유승빈63 △유영은86 △윤석구53
△윤의준79 △윤종성81 △이경환83

△이광모71 △이교복73 △이남순72
△이덕영77 △이동권71 △이순병68
△이여종68 △이원형70 △이원호74
△이재운63 △이재홍72 △이종훈55
△이해종75 △이홍원66 △이후철63
△임기석63 △임현동84 △전희상70
△정관수72 △정방언73 △정태현73
△조선휘50 △조영호75 △조유근67
△진조철76 △차상묵66 △천의영81
△최길영71 △최명경65 △최상현77
△최순철39 △최영명69 △최준식71
△한상준71 △현규택83 △홍기준69
△황각규73 △황기승64 △황일인59
△황희연74

◆농대 △곽수년71 △곽지상52
△권오진52 △권태명65 △김강식52
△김규석63 △김영옥63 △김원일84
△김유용83 △김윤배61 △김일봉68
△김종대72 △김태수66 △김학규64
△박기수71 △박선현71 △박승제73
△박창연80 △서원호74 △손해일67
△신원집60 △양성용73 △양준식82
△원종영62 △유상렬78 △유해강86
△윤경섭65 △윤여창74 △이건일60
△이균성84 △이상옥66 △이성홍71
△이수근64 △이시규73 △이용익69
△이치섭56 △이해동68 △임용택54
△장길평62 △장영호77 △정용덕69
△정진근69 △지규배67 △한갑준52

◆문리대 △권민웅62 △김 승61
△김덕룡61 △김영철67 △김재민67
△김재삼66 △김철중70 △남광성61
△류성희61 △박기덕70 △박무종66
△박봉기62 △박성훈69 △박윤경56
△박정무59 △박혜란65 △안병균67
△오수국72 △오영일61 △유 영66
△유덕상68 △이성우63 △이시종67
△이연희51 △이용일66 △이재형65
△이철배59 △장성근63 △하우봉71
△한화갑59 △홍두표55 △홍사덕61

△홍종호62 △황경호54 △황정식52
◆미대 △김규봉88 △김제응60
△김종선74 △박민여62 △배정숙74
△신현장65 △윤형규58 △이동영76
△이명기76 △최동신60

◆법대 △강이수58 △강태중52
△강희철75 △고현철65 △고흥달68
△곽일훈60 △권영상75 △김석영51
△김영수60 △김윤기75 △김종일52
△김주영83 △김중근60 △김진만60
△김현무58 △박노정74 △박휴상65
△박희문73 △서 민58 △성낙인69
△성문용63 △손영섭75 △송영철80
△송인준63 △신희택71 △오영진65
△유근원62 △유재선63 △윤태방59
△이강남67 △이건주82 △이근병79
△이동명75 △이문재65 △이석형69
△이영옥52 △이재후58 △이현승67
△임태수56 △전 광63 △전응진49
△정기영51 △정병섭56 △정영화81
△정호영66 △조규환60 △조용무60
△조정근77 △조현발68 △조현우68
△최만립54 △최순철55 △하창우74
△한 정84 △한경구61 △한종원70
△현덕규83 △현종찬74 △현홍주59
△홍종현64

◆사대 △강기창73 △고영신73
△김경애74 △김광수72 △김남철72
△김문규66 △김수신60 △김영숙54
△김영찬52 △니근형58 △노정학73
△류재혁81 △문영식73 △민경진71
△민무일65 △박기식79 △박지모77
△박혜숙75 △배호순67 △성낙돈74
△신관국65 △안준천44 △안희수61
△엄영주66 △옥정석72 △이경복69
△이규석66 △이범국55 △이범중78
△이숙영59 △이종승65 △이준선69
△이해익72 △이현석74 △이형준70
△인병식61 △장재혁80 △정주섭52
△정화욱78 △조규권76 △조형우80

△최태상53 △한도연49 △함오연67
△홍성한52

◆상대 △구용서60 △김광안61
△김선용68 △민상기66 △박병준51
△박성석61 △백정기71 △손석주46
△송계선53 △송필호68 △신영철53
△양승우68 △윤영석58 △윤원배65
△이균재48 △이남수62 △이대우72
△이상득57 △이윤우68 △장종의68
△정운찬66 △조경수58 △조문규57
△최기동70 △최병선71 △추한식54
△추호석69 △한이현64 △홍순기50
△황 훈68

◆생활대 △장기숙72
◆수의대 △나기식54 △방극승64
△배상호64 △이상만48 △임영철74
△조은제80 △조휴익59

◆약대 △권경근56 △김동춘55
△김정기69 △박사룡64 △박종호67
△백성기59 △서광훈67 △손영준61
△신화용46 △오연준56 △유재은61
△이민화55 △장학순47 △전창수74
△전하창67 △정연심54 △조용한73
△최건혁70 △황성주76

◆음대 △김성심64 △김순화70
△박현선56 △백원정65 △이신화61
△이준복68 △임재원76 △최성희80

◆의대 △강세철49 △고광철79
△고행일64 △권준수84 △김명주56
△김상은77 △김예원68 △김용섭84
△김중근70 △김철우70 △남삼윤72
△맹국영68 △문성무60 △박문희46
△박영석82 △방재승93 △성상현73
△손근찬52 △송영주74 △신 실60
△신상진79 △신희철65 △안병현67
△안제환66 △윤택구51 △이도희78
△이명철67 △이부영52 △이수일69
△이순탁44 △이승덕83 △이원재79
△이의용72 △이중근68 △이태원74
△임 영75 △장경애88 △전동원58
△정 민75 △정영화75 △정운재75
△정을삼60 △정태완64 △정하원78
△조영희56 △조환구44 △지석산81
△천시욱72 △최국진58 △최기용74
△최기은77 △최병일59 △최성준83
△최인호70 △최정연68 △최종운77
△추광철60 △한병재58 △한의수78

△한홍무⁵⁶ △황대웅⁶⁰ △황성남⁶⁹
△황유성⁷⁸
◆치대 △김갑주⁶⁴ △김병기⁷⁷
△김영구⁶⁵ △김영규⁶⁹ △박명종⁷⁹
△박충차⁶² △박형기⁵⁵ △변석두⁵³
△서영수⁶⁷ △양수정⁸³ △이종철⁷⁶
△이종혁⁷⁴ △이해호⁸² △임용준⁶⁵
△정경수⁴⁶ △허정국⁵⁵ △홍경택⁶⁴
△홍현식⁸²
◆대학원 △김응진⁴⁹ △김종임⁸⁹
△박응수⁸¹ △박재환⁸¹ △배명진⁸³
△조태현⁷⁹
◆경대원 △유장규⁶⁷
◆교대원 △송향섭⁶⁴
◆보대원 △구성희⁶⁷ △김상육⁹⁶
△민정기⁸¹ △송달옥⁷² △이영남⁷¹
△조경복⁹² △황석전⁸⁰
◆사대원 △이원형⁶⁴
◆신대원 △황영일⁷²
◆행대원 △김광립⁸⁰ △문희갑⁶⁶
△윤영대⁷⁴ △최봉기⁷⁷ △최운지⁶⁴
◆환대원 △민봉기⁷⁷ △박경자⁷⁶
◆AMP △강춘근⁵³ △고희선⁴¹
△김세래⁴⁶ △김종규⁶⁰ △김준언³⁴
△박상규³¹ △박석희⁵² △성백운⁵³
△이근호⁵² △이세락⁴⁵ △이영관⁵⁷
△이인정³⁵ △이장오⁵⁰ △이태교⁴
△임연규¹ △정건택²¹ △정동인⁵⁸
△정보연⁴³ △정석현⁴⁴ △정은석⁵⁹
◆AIP △권오일³⁰ △김종연³⁰
△서정필³³ △윤승현³⁶ △이금숙²⁹
△이동훈²⁰ △이두평⁸ △이준오²⁴
△임종한¹⁵ △조흥구¹⁸ △주미희²⁶
△최용길²²
◆ACAD △김성조⁵⁴ △김오성²⁴
△김우연¹⁴ △서찬교⁴⁰ △이건모⁵¹
△이헌국⁵⁴ △이흥구⁵⁵ △정재호⁶¹
△조인숙⁴⁸ △조진형³⁶
◆ABP △박준명¹² △이영호¹⁴
◆SGS △김동일¹² △안기석¹⁰
△이래원⁶ △이점수⁶ △이제경¹²
△정해순¹⁵
◆APC △김두완⁵
◆HPM △김태영²⁰ △류기영¹⁴
△양승태¹⁶ △정동화⁷ △최정봉¹¹
△허 겹¹²
◆AMPP △김일동⁶ △이인근²

△한장범⁵
◆AIC △계택모¹⁸ △공엄용²¹
△김상춘¹⁸ △김영배² △류진국¹
△박철규³ △한병천¹²
◆AMPFRI △권상범² △김명중¹⁶
△김현승⁷ △염경산⁵
◆FIP △명경주³
◆GLP △김 설⁸ △김소형⁶
△박종춘¹³ △신태성⁴ △양재길⁵
△임득순⁴
◆ALP △이완기⁴ △하정열⁴

일 반

◆인문대 △김능구⁸¹ △김성윤⁷⁴
△김세영⁷⁴ △김영민⁹⁶ △김영인⁸³
△김영홍⁷⁴ △김은식⁷³ △문병우⁸⁷
△박성순⁹¹ △박세형⁷⁵ △박정진⁰⁴
△박진형⁹¹ △박해진⁸¹ △박형섭⁸⁵
△서지선⁸³ △손정현⁸⁴ △심용하⁷²
△심윤남⁸² △안현모⁰² △원선우⁰⁴
△유경숙⁹³ △유상철⁸¹ △이경완⁸⁹
△이관승⁹⁸ △이상범⁷⁶ △이선영⁹¹
△이수창⁸³ △이영석⁷⁰ △이진영⁷⁷
△임삼진⁸⁰ △장수현⁹⁸ △정병윤⁷⁸
△정준모⁹⁸ △정항균⁸⁷ △조대호⁸⁷
△조의명⁰¹ △조현삼⁰⁰ △최광웅⁸²
△최권형⁷² △최동규⁷² △최상이⁹⁹
△최윤희⁸⁵ △허남정⁷⁷
◆사회대 △강경일⁹⁹ △고영일⁸⁴
△고은실⁰¹ △구자훈⁷² △김경수⁹⁰
△김광덕⁸² △김보미⁰¹ △김연광⁸⁰
△김용린⁰² △김용식⁹⁵ △김재형⁹⁷
△김재호⁸⁵ △김정환⁹⁰ △김지선⁰⁴
△김한욱⁸⁵ △김훈영⁰³ △나하나⁸⁸
△도종윤⁹⁷ △류연택⁹¹ △문병성⁷⁴
△박광수⁸⁴ △박호준⁰⁰ △박희택⁹⁶
△배정훈⁹⁹ △백승훈⁸⁰ △서병선⁸¹
△손도일⁸⁶ △송동호⁰⁰ △송호준⁸⁵
△신영섭⁷⁴ △안국환⁷⁹ △안준현⁹¹
△윤계근⁷⁸ △이기우⁷³ △이길호⁸⁵
△이부원⁸³ △이진녕⁷⁸ △이천복⁷⁴
△이호중⁸⁶ △임태규⁸⁹ △장 원⁸⁶
△장병승⁸² △전룡배⁸² △전옥현⁷⁵
△정간채⁸⁷ △정규억⁷³ △정연진⁹⁸
△조수현⁷² △조영화⁰⁰ △조용흥⁷⁶
△조태형⁸⁸ △차명진⁷⁹ △최완근⁸¹

△한나라⁰² △현길환⁹⁹ △황병철⁷³
△황선기⁸⁷
◆자연대 △강성구⁸² △공성문⁸¹
△김기환⁹² △김상희⁷³ △김성훈⁷⁵
△김윤호⁰² △김혜진⁰¹ △김효진⁰⁴
△남문식⁹⁸ △노수진⁰³ △민경석⁸⁴
△박성준⁸⁶ △박유나⁹⁶ △박윤경⁸³
△박정우⁰⁰ △박지용⁹⁶ △박지원⁰⁶
△안재영⁰¹ △양일우⁷² △유영만⁸⁴
△이상규⁰⁵ △이영근⁶⁹ △이종구⁶⁶
△이현형⁹⁹ △전동오⁸⁴ △전용범⁸¹
△전재혁⁹⁰ △정민선⁰⁴ △정승원⁹⁸
△정진욱⁹⁰ △정진현⁹⁷ △정찬규⁸³
△정현교⁰⁰ △조용범⁰¹ △한표환⁷⁴
△홍지석⁹⁸
◆간호대 △김기주⁶⁶ △김을자⁶⁴
△신혜경⁶⁸ △오현숙⁸³ △이인옥⁷⁴
△임미현⁰³ △정 한⁷⁵ △정영희⁷⁴
△현희수⁵³
◆경영대 △공병혁⁹⁹ △김건수⁹⁴
△김덕중⁰¹ △김석동⁷³ △김소희⁰⁴
△김열중⁷⁷ △김영재⁸⁰ △김왕용⁷⁸
△김용철⁸³ △김천일⁹⁸ △김형석⁸²
△남윤재⁸⁵ △박매화⁰⁶ △박영안⁷²
△박준길⁷⁹ △서종수⁸⁶ △오동렬⁹⁹
△이대성⁷³ △이명준⁸⁴ △이상천⁷²
△전병욱⁸² △정진욱⁹⁰ △조규근⁷⁰
△진수연⁹⁷ △차순관⁷² △최종욱⁸⁹
△황동철⁷⁵ △황성택⁸⁶
◆공대 △강경택⁵² △강영식⁶⁸
△강우식⁵⁴ △고광일⁸⁰ △고병렬⁴⁸
△고승구⁷⁶ △고유진⁶⁹ △공석봉⁵¹
△곽민정⁰¹ △곽한우⁷³ △구본웅⁷¹
△권오준⁰² △권종은⁰⁰ △김 영⁵³
△김광수⁹² △김광택⁵⁹ △김규은⁴⁸
△김근환⁸⁶ △김대호⁶⁸ △김동호⁸⁶
△김상돈⁵⁶ △김서희⁰³ △김성환⁶⁹
△김시훈⁶⁸ △김안순⁵⁴ △김열규⁷⁰
△김영철⁵³ △김용창⁶² △김우재⁹³
△김재한⁵⁴ △김재화⁵² △김제욱⁷³
△김종윤⁹⁹ △김준모⁸⁹ △김준용⁰²
△김진우⁰³ △김한근⁸¹ △김휘중⁶⁴
△김희국⁵⁴ △남기형⁸⁶ △노무섭⁶⁹
△노원섭⁵⁹ △류 훈⁸³ △민수홍⁰⁰
△민철원⁹⁸ △박동원⁸⁰ △박상혁⁰³
△박영순⁵⁴ △박용택⁶³ △박인오⁸³
△박제서⁶⁵ △박종명⁷⁵ △박종태⁸²

△박흥용⁰² △배성준⁹⁹ △백봉근⁵⁰
△변강섭⁸³ △변세종⁹³ △변수근⁵⁷
△변정규⁵¹ △부상훈⁹⁰ △서병수⁸²
△서준원⁹⁶ △석해호⁶⁸ △성기영⁵⁴
△손태희⁹⁹ △송완근⁵³ △신만중⁷⁶
△신상묵⁷³ △신송철⁵⁴ △신영범⁶⁶
△신혁호⁹⁸ △신현묵⁴⁵ △안학수⁵⁰
△양준호⁸⁰ △염창신⁷⁷ △오열근⁵⁷
△우상혁⁰² △원일우⁷⁵ △유건환⁵⁶
△유근중⁹⁷ △유민택⁰³ △유상희⁵⁸
△유승업⁹³ △유영창⁷³ △윤경원⁹²
△윤도영⁶⁹ △윤석일⁹⁸ △윤성로⁹⁹
△윤승근⁹⁷ △윤여경⁴⁸ △윤영섭⁶⁶
△윤재준⁶⁰ △윤준식⁹² △이광민⁵⁷
△이근호⁶⁷ △이대영⁸³ △이병길⁸⁶
△이선형⁵⁷ △이성욱⁹⁴ △이성주⁸³
△이세용⁸² △이연태⁰⁰ △이원복⁵⁰
△이원진⁸⁹ △이윤수⁶⁶ △이인재⁸²
△이정우⁶⁵ △이정호⁶⁵ △이종규⁵⁷
△이치용⁵⁷ △이태현⁹⁵ △임 준⁹²
△임용규⁸⁴ △장서우⁰² △장재명⁰⁰
△전복현⁵⁸ △정낙흥⁷³ △정동섭⁶⁴
△정병일⁵⁰ △정상준⁹⁴ △정성욱⁹⁹
△정우상⁴⁹ △정원배⁵⁹ △정인수⁷³
△정희동⁰¹ △제해찬⁷⁴ △조동기⁹³
△조승제⁵⁶ △조정호⁶¹ △조종규⁷⁴
△지선호⁸⁶ △지정기⁸¹ △지태용⁵¹
△진상록⁰⁰ △진석현⁵⁶ △진형구⁶³
△채희선⁶⁹ △최영대⁵² △최재평⁹²
△최하식⁴⁶ △하규성⁷⁶ △하태훈⁷⁵
△한상우⁹² △한영수⁶⁵ △한정훈⁸⁵
△한철중⁵⁵ △현봉섭⁴⁹ △황보주원⁹⁸
△황호남⁶⁷
◆농대 △강남훈⁷⁷ △강용찬⁶⁵
△강유성⁶⁴ △고석주⁹⁸ △고영곤⁷⁸
△공재환⁶⁸ △공홍표⁷⁸ △곽유신⁸²
△구문광⁶⁰ △구자훈⁷⁷ △권상대⁶¹
△권주혁⁷¹ △권태걸⁵⁷ △권혁세⁵⁴
△김 현⁵⁸ △김경흠⁹³ △김세창⁶⁰
△김억년⁶¹ △김영각⁴⁹ △김영규⁵¹
△김인기⁶⁰ △김인희⁵⁸ △김재웅⁶³
△김재윤⁶⁴ △김정특⁷⁶ △김종운⁸²
△김진균⁷¹ △김학기⁶⁵ △남성우⁶⁹
△남현석⁸¹ △류충렬⁷⁴ △맹수철⁸³
△박내정⁶⁰ △박동호⁷⁴ △박숙규⁴⁸
△박우철⁶⁹ △박윤근⁵⁵ △박종문⁶⁴
△박진구⁸⁴ △박태식⁶⁸ △박관규⁵⁵

△변영숙⁷⁰ △서정택⁶⁷ △서주형⁰¹
△송기종⁵⁴ △송환창⁴⁶ △신일선⁵⁸
△오숙희⁷⁶ △오영덕⁸⁶ △오윤진⁵⁶
△유승렬⁵³ △이 흥⁶¹ △이규선⁰²
△이대성⁷³ △이상현⁷⁷ △이석기⁶³
△이선진⁶⁹ △이영렬⁵⁴ △이용모⁵²
△이응호⁸¹ △이재문⁶¹ △이지혜⁰¹
△이창구⁶⁶ △이호준⁶⁴ △이화용⁵³
△임동욱⁹⁵ △임상순⁸² △임상표⁹⁰
△임용섭⁸⁷ △임창빈⁵⁶ △정영근⁶⁸
△장재연⁹⁶ △장정동⁵¹ △정경진⁵⁵
△정광현⁰⁰ △정민환⁶⁵ △정선자⁶²
△정해각⁵⁵ △조재구⁸³ △조현수⁷⁴
△주창규⁰⁰ △진길부⁶⁶ △최봉근⁶⁹
△최상균⁵¹ △최성환⁶² △최영일⁴⁶
△한정수⁵¹ △함태홍⁷⁰ △현재선⁴⁴
△황규석⁷⁶
◆문리대 △고석진⁵⁷ △구본룡⁶⁹
△김남진⁵⁹ △김두진⁶⁵ △김만욱⁵⁹
△김명환⁶¹ △김명환⁵⁷ △김용달⁵⁷
△김은수⁷¹ △김인철⁶⁰ △김창락⁵⁶
△김태동⁶² △김현남⁴⁷ △김희영⁵²
△니종일⁴⁸ △남성우⁵⁹ △노계원⁵⁸
△문무홍⁶⁷ △배태영⁶⁷ △변용식⁶⁸
△봉종현⁶⁰ △신증성⁷⁰ △안병화⁵⁰
△안원태⁵² △양승영⁵⁷ △우종택⁵⁴
△원주호⁵⁰ △유민수⁵⁵ △유인태⁶⁸
△유준재⁶¹ △유희형⁶⁰ △윤영식⁵⁴
△이상만⁶³ △이우석⁵³ △이정순⁶⁰
△이종국⁶¹ △이준모⁶³ △이택휘⁵⁷
△이현기⁵⁴ △이효정⁷¹ △인공례⁵⁴
△임래규⁶⁵ △임성기⁶² △정종학⁵⁹
△전병학⁶² △정귀래⁶³ △정용승⁵⁸
△정익성⁵⁷ △조환익⁶⁹ △천병희⁵⁶
△최선록⁵⁹ △한명윤⁵⁶ △한박무⁶⁶
△한상복⁵⁹ △한철순⁵⁸ △황봉운⁵⁸
◆미대 △고병복⁵⁶ △김소연⁰⁶
△김시용⁵⁶ △김재형⁰² △김지수⁹³
△박민희⁸⁵ △박정기⁶⁴ △성낙인⁴⁶
△손원갑⁶⁵ △신수희⁶² △오수웅⁵⁵
△우상호⁸⁹ △윤기림⁹⁹ △이영재⁷⁹
△이정숙⁶⁵ △임순자⁶⁹ △전경미⁰²
△지윤미⁶² △최숙경⁵⁹ △최인수⁶⁶
△황숙현⁶⁹
◆법대 △강민구⁷⁷ △강인현⁵⁶
△강재섭⁶⁷ △곽정출⁵⁷ △곽창욱⁵⁸
△구본민⁷⁷ △국상종⁸¹ △김기동⁷⁵

△김명종⁶⁵ △김병호⁸² △김승렬⁷⁹
△김신영⁰¹ △김연근⁶⁵ △김영철⁷⁷
△김용덕⁷⁶ △김용현⁷⁴ △김용호⁷⁶
△김우진⁸³ △김윽섭⁵⁶ △김재규⁵⁷
△김재춘⁵⁶ △김정태⁷⁵ △김종영⁸⁵
△김태현⁷⁴ △김형두⁵² △노영보⁷⁴
△도지훈⁵² △민유숙⁸³ △박동규⁰²
△박민표⁶² △박병명⁷⁴ △박성민⁹⁶
△박영석⁵⁶ △박용승⁷² △박용우⁸⁸
△박원출⁶⁷ △박재운⁶⁵ △박재철⁶¹
△박정식⁵¹ △박주환⁶³ △박준양⁴⁹
△박창대⁵⁵ △백덕렬⁶⁷ △변희찬⁷⁸
△서주홍⁷³ △안철환⁵⁷ △양승찬⁷⁰
△임진현⁵¹ △오형환⁶⁵ △우병우⁸⁴
△원윤목⁵⁵ △원형일⁸⁷ △유병순⁵⁵
△윤세리⁷² △윤우진⁷¹ △이경하⁶⁴
△이국희⁰² △이삼현⁴⁸ △이상철⁵⁸
△이성환⁷⁴ △이양우⁵⁹ △이영애⁶⁷
△이용웅⁶⁵ △이재형⁶⁶ △이제재⁴⁷
△이종환⁵⁹ △이지은⁹⁶ △이학무⁵⁵
△이학성⁷⁷ △이현경⁰² △임성근⁸²
△임준호⁷⁷ △전수철⁶³ △전원배⁷²
△정일만⁷² △정준영⁸⁵ △정철승⁸⁹
△정태웅⁹⁵ △정팔재⁸⁴ △정학진⁷⁴
△정형근⁶⁴ △조수현⁷⁰ △조승식⁷⁰
△조재석⁵⁶ △조주현⁹⁵ △조현수⁷⁸
△주찬화⁶⁹ △최덕현⁹⁵ △최명선⁵⁹
△최석문⁸⁶ △최현준⁰¹ △한봉수⁴⁹
△함석재⁵⁷ △허근영⁷⁵ △형대우⁶²
△황운영⁵⁵ △황원희⁸⁴
◆사대 △구나영⁰³ △구자혁⁵⁷
△권문환⁷⁴ △김동욱⁷³ △김동진⁶²
△김명수⁶⁸ △김민정⁸² △김범기⁶⁶
△김병국⁵⁶ △김상경⁸⁶ △김성수⁶⁸
△김소연⁸⁵ △김수웅⁶⁰ △김용준⁰²
△김윤경⁸⁵ △김은숙⁵¹ △김은재⁴⁵
△김재혁⁵⁰ △김정용⁷⁸ △김창경⁶¹
△김천수⁸¹ △김혜숙⁰¹ △김혜정⁸⁵
△김홍동⁷² △류벽하⁷⁷ △문제세⁷¹
△민영오⁶⁵ △박경현⁶⁴ △박광채⁸⁵
△박대규⁵⁷ △박신우⁷⁶ △박희용⁶⁵
△서정기⁵³ △서주만⁵⁷ △성시연⁰¹
△손흥빈⁴⁸ △신상철⁵⁵ △신영경⁰¹
△심상석⁵⁸ △안정아⁰² △염도균⁵⁹
△오금성⁶⁰ △오세왕⁶⁷ △우한웅⁶⁸
△유명수⁶¹ △유정숙⁶⁴ △윤동선⁵⁹
△윤석원⁶⁸ △윤인식⁶⁵ △윤홍중⁵⁵
△윤희원⁷⁵ △이규식⁵⁸ △이민형⁶²
△이방렬⁶⁵ △이보식⁵³ △이상두⁰⁰
△이영호⁵⁰ △이인희⁶¹ △이재완⁷²
△이정아⁰⁴ △이제용⁶⁰ △이종철⁷⁵
△이진구⁷¹ △이현순⁵³ △이흥종⁵⁴
△임덕순⁵⁸ △임상규⁵⁴ △임수진⁸⁴
△임순희⁸² △임해규⁷⁹ △장병덕⁵⁷
△장유미⁹⁹ △전명수⁵¹ △전쌍식⁸⁷
△정복래⁵⁴ △정봉채⁵⁸ △정세진⁴⁴
△정진근⁶⁹ △조병완⁵³ △조선형⁵⁹
△조형제⁸³ △진명희⁷⁸ △최명진⁶⁵
△최병호⁵⁷ △최안기⁷⁰ △최정숙⁵³
△최천학자⁵² △한지은⁰¹ △함종규⁴⁶
△현성준⁷⁸ △형남두⁵² △황기탁⁴⁹
◆상대 △강 영⁶⁴ △강종우⁶²
△고을상⁵¹ △권혁대⁴⁹ △김광연⁵⁶
△김도승⁶⁰ △김송자⁵⁹ △김용민⁷⁰
△민경효⁵⁷ △박순태⁵⁶ △박은진⁵⁴
△박종한⁴⁹ △서상달⁶² △서정욱⁵⁹
△서정호⁴¹ △신동현⁵⁶ △신중현⁵⁶
△신총렬⁶⁶ △심문섭⁵⁴ △안기수⁵³
△엄치섭⁵³ △오우현⁵⁵ △위계신⁵⁴
△유재홍⁶⁸ △윤하균⁵⁵ △이기주⁴⁶
△이기철⁵⁵ △이동재⁵⁴ △이상범⁷¹

△이상호⁵⁷ △이재덕⁷¹ △이정삼⁵⁹
△장기욱⁵² △장성운⁷² △전창기⁵⁷
△정상용⁶¹ △지영식⁵⁷ △최병호⁴⁹
△최제현⁴⁹ △탁승호⁶⁵ △한일상⁶¹
△홍일표⁴⁹
◆생활대 △김순오⁵⁵ △김정숙⁶⁹
△김정희⁷⁶ △박순이⁷⁴ △박현순⁶⁹
△방형애⁸³ △안윤진⁸⁹ △이유승⁰²
△이재우⁷⁶ △정정기⁹⁰ △조선경⁸⁵
△최윤정⁸⁴ △홍정란⁸⁴ △홍형욱⁷³
◆수의대 △김종면⁵² △김준삼⁵⁵
△서장우⁶³ △오하균⁸⁸ △유병문⁶⁷
△윤영원⁶³ △이병익⁷⁰ △이상인⁸²
△이영득⁶³ △전원표⁵⁶ △조명래⁷⁰
△최광수⁵⁸
◆약대 △구창모⁷³ △김용정⁵⁸
△김장숙⁵⁸ △노일협⁴⁵ △박기숙⁸⁶
△박민찬⁹⁸ △박정욱⁸³ △배옥남⁹⁵
△배윤주⁹⁹ △윤용상⁷⁸ △이원욱⁰²
△이훈자⁵⁶ △장용택⁵⁵ △정숙기⁵⁴
△조윤숙⁸³ △주승재⁸⁶ △채영주⁵²
△한은아⁹¹ △허병기⁶⁶
◆음대 △고원화⁹⁸ △곽수정⁰³
△곽혜경⁸⁰ △김기홍⁸⁰ △김미령⁷⁰
△김새별⁶⁷ △김수연⁹⁴ △김숙이⁷³
△김지은⁸³ △김지혜⁸⁸ △박정배⁵³
△서은령⁸⁰ △송복자⁸⁴ △신수인⁰³
△신영자⁶³ △신혜경⁷⁰ △신혜영⁹³
△양은희⁷¹ △오건식⁵⁵ △오진희⁸⁰
△원호선⁷⁴ △윤기숙⁸² △윤명순⁷⁹
△이경미⁰³ △이경화⁷⁷ △이문경⁷⁶
△이영주⁶¹ △이윤숙⁰⁰ △임정원⁸³
△임창주⁰² △장병훈⁰⁴ △전유진⁹¹
△정은숙⁷⁴ △조정현⁰⁰ △조하나⁰³
△채치성⁷³ △한민숙⁶³ △한혜자⁶¹
△홍비자⁶⁰
◆의대 △강해연⁹⁸ △공현식⁹²
△구자남⁸⁴ △권보상⁹⁷ △김건석⁸²
△김성구⁵⁸ △김원희⁰⁵ △김청수⁶⁸
△김태규⁷⁶ △김현희⁷⁶ △김형래⁷⁶
△민현기⁴⁵ △박민수⁹² △박홍용⁸⁰
△손영민⁸⁹ △송만준⁵⁷ △송영명⁶⁶
△신명희⁵⁶ △신상구⁶⁸ △신혜원⁰⁵
△심재식⁶⁷ △안영준⁸⁹ △양만규⁴⁵
△양철균⁷⁰ △오석환⁴⁵ △오정성⁶⁷
△유소영⁹³ △윤용구⁶⁶ △이규호⁰³
△이성근⁴⁵ △이승철⁶⁸ △이인영⁵¹
△이정엽⁹⁰ △이정하⁰² △이종표⁵³
△이지혜⁰¹ △이태연⁹² △이한이⁰²
△임한종⁵¹ △임효근⁷⁵ △장경만⁸⁰
△장선택⁴⁶ △전형경⁸⁸ △정문상⁶⁵
△정상준⁰³ △정종우⁸⁰ △정철우⁹¹
△최두호⁷⁶ △최은경⁹⁸ △최진숙⁷⁸
△한태형⁸¹ △함정욱⁸⁹
◆치대 △고미나⁰³ △김계종⁶⁰
△김능세⁷⁰ △김동화⁵⁶ △김문형⁶⁰
△김영선⁴⁶ △김영호⁵⁸ △김정우⁶¹
△김종택⁵⁸ △김주관⁶⁶ △김화춘⁵⁹
△맹형렬⁷¹ △박세운⁸⁶ △박태원⁵⁸
△방효숙⁵⁷ △백위현⁶⁶ △백정화⁸⁶
△손오영⁵⁴ △안 박⁶⁰ △인병관⁵²
△오안민⁶⁰ △오지연⁸³ △왕상현⁵³
△유동수⁵⁶ △이규승⁵⁸ △이민영⁵⁸
△이병규⁵⁷ △이병태⁶¹ △이인경⁸²
△이장훈⁵⁷ △이종범⁹⁹ △이종호⁷⁹
△정미영⁸⁶ △최명진⁷⁵ △최병택⁷⁵
△한광희⁶⁶ △한송이⁹¹ △현영민⁹⁰
△홍성룡⁶⁴
◆대학원 △권은희⁸⁴ △권혁대⁸⁴
△김내동⁷⁹ △김승득⁸⁹ △김재호⁷⁷
△김진양⁹² △박태웅⁹⁵ △안무혁⁶²

△오문성⁸⁴ △윤경섭⁸⁹ △윤희윤⁷¹
△이용범⁸² △이정승⁸⁸ △조은희⁸⁴
△조준현⁸³ △최인수⁸⁵ △허찬수⁷²
◆경대원 △구자일⁹³ △권영천⁶⁶
△이종렬⁸⁸ △이태민⁹⁶ △임창원⁹⁴
△정일채⁶⁷
◆교대원 △정병관⁶⁹
◆국대원 △봉민종⁰⁵
◆보대원 △박천봉⁷² △신기준⁶⁶
△윤기은⁶⁹ △정상조⁶⁷ △조춘국⁸⁴
△최용근⁹¹ △최정숙⁰⁰
◆사대원 △최종백⁶⁴
◆신대원 △황우권⁷²
◆행대원 △권택상⁸¹ △김호경⁷⁷
△니승렬⁸² △박재원⁷¹ △서병규⁸⁸
△양인모⁷¹ △윤 영⁸⁴ △이원기⁶⁷
△이현재⁷⁶ △장인태⁸¹ △조일호⁷⁰
△주종욱⁸⁶ △최상복⁰¹ △최양규⁸⁶
△한창연⁰⁴
◆현대원 △노승원⁰⁵ △박종소⁸³
△양석우⁰⁵ △이규환⁷⁷ △이종일⁸³
△이춘택⁷¹ △진화연⁰⁶ △황두연⁷⁴
◆AMP △고시목⁸ △고은봉³³
△곽우식⁶⁴ △구자정²³ △권광태⁶⁰
△권병식²⁸ △권오영⁶⁴ △김동엽⁶
△김동해⁶² △김배호⁵² △김정현⁶⁴
△김주환⁵⁰ △김홍덕⁵⁴ △남기욱³²
△노태식⁶⁴ △박노선¹² △박성호⁶³
△박세영¹³ △박원규⁵⁰ △박은현⁵¹
△서재식⁶² △손병복⁶⁴ △손재환⁴⁸
△송두엽²² △송준강³³ △신 함⁵²
△신문범²³ △신승훈⁴⁷ △신대범⁵
△염정태⁴⁰ △오장섭²⁷ △유학수⁵²
△윤종태⁵² △이경우⁴³ △이규관³⁷
△이규식⁵⁴ △이병성² △이성연⁴
△이영숙¹³ △이영주⁵ △이재환⁴⁸
△이종학¹³ △이진호³² △이찬국⁴⁶
△이창호³⁷ △이철우⁵⁸ △이춘식⁵⁶
△이희상²² △임영훈¹⁴ △장재철³⁹
△전동근¹¹ △정근화³⁶ △정달영⁸
△정도연²⁸ △정원영⁶³ △정의순⁴
△정장현⁴⁰ △정홍기³⁰ △조인상²

△진성섭¹⁰ △최영식⁴ △최종욱¹⁵
△최희종⁴² △한상균⁶⁴ △함영조⁶²
△함태호¹¹ △황규홍⁵⁷
◆AIP △고귀선¹⁹ △곽문연⁸
△권영후¹ △권오열²² △김명현²²
△김승길¹⁰ △김옥정²⁹ △김정원¹⁸
△김종엽³⁸ △김해선²⁶ △노미혜³²
△박금옥³³ △박종호⁹ △백성호³⁸
△성기탁²⁰ △신성기¹⁴ △신용기⁹
△염석훈⁷ △유길상⁹ △이경구²⁸
△이상철³⁶ △이상호⁸ △이종택³³
△이장섭²⁹ △이전우¹³ △이태화¹⁶
△장철호²² △정영계³³ △조종제¹⁴
△채봉석³⁰ △한호형³⁸ △홍성철³⁴
◆ACAD △고광섭⁶⁵ △고완섭⁶⁴
△고재정³⁰ △공운현⁴⁷ △김덕창³⁹
△김병철⁴⁵ △김수만⁵⁶ △김우석⁴⁹
△김원근⁶⁵ △김인국⁶⁵ △김인종⁵⁴
△김현수³⁰ △김호연¹¹ △박대열⁵⁸
△박상규⁴² △박용암⁴³ △방일홍⁵
△변효철⁶¹ △송선근⁴⁹ △이경환⁶⁴
△이광호⁵³ △이문용²⁷ △이범장²⁹
△이상태⁶³ △이상인⁵⁰ △이영숙¹⁷
△이용대⁶³ △이재근²² △이희수²¹
△임채근⁶⁴ △임충규⁴⁵ △정진문⁶⁵
△조부영¹² △진진형⁴² △차영준⁵²
◆ABP △김영수²⁶ △김정택²³
△박영기²⁵ △오기선³⁰ △오무영¹⁸
△오숙희²⁷ △이영희²⁹ △임필수²²
◆SGS △김재웅¹⁷ △서의권¹⁷
△이민관¹⁷ △이창식¹³ △정종협¹⁷
△정평화⁶ △한상용⁶
◆CHCN △박희삼¹
◆APC △강재수⁷ △김동섭⁹
△양화승⁸ △윤명근⁷ △이범희³
△정필무¹
◆HPM △김경태¹⁰ △변 욱²²
△서용만¹⁸ △채상식¹⁷ △최봉영²²
◆AMPP △김광근⁶
◆AIC △김형준²⁴ △성기호¹⁹
△신일자²⁴ △유형수²³ △윤대영²
△이상기²¹ △이상조²² △이영훈¹¹

△정하황²² △조원갑²⁴
◆AFB △이진순¹
◆AMPFRI △김수명¹⁶ △김종인⁷
△문영철¹⁸ △문은숙²² △박용철⁴
△안홍자²² △오명철²⁰ △오일환⁹
△이강우⁹ △이경삼¹¹ △이유인⁷
△이춘희⁹ △임영수⁸ △전주성²²
△정지택³ △지종윤⁹
◆ACPM △강현정² △김성규⁴
△김세민⁴ △김임배² △김주동³
△이광식⁴ △이미란⁴ △이상필²
△임대국³ △최형식³ △한정웅³
◆FIP △문재웅⁵ △신중구⁴
△신현민¹ △이인화⁵ △한경택³
◆GLP △강미모¹⁶ △강홍석¹⁶
△권순형¹⁶ △김경태¹⁷ △김보근¹⁶
△김재호¹⁷ △김형일¹⁷ △김호철¹⁶
△다예인¹⁶ △신용식¹⁷ △안기억¹⁶
△양기해¹⁴ △이두순¹⁶ △이명희¹⁶
△이정민¹⁶ △이종혁¹⁶ △임승호⁵
△임재묵⁹ △전진규¹⁶ △정인태¹¹
△정재욱¹⁴ △정종원¹⁷ △정해연¹⁷
△조기동¹⁷ △차기민¹⁶
◆ALP △김순옥⁷ △노석우¹
△박인규¹ △박정호⁵ △박종구⁷
△박찬재⁷ △백정기⁶ △이관훈³
◆SPARC △김삼중¹³ △김선자⁷
△김청자¹³ △박상하¹³ △유희봉⁸
△윤상기¹ △정창무¹³

분 담 금

◆시드니지부 50만원
◆필리핀지부 50만원
◆싱가포르지부 50만원
◆태국지부 465달러
◆오사카지부 1천달러

9·10월 계 : 65,523,332원
평생회비 : 15,800,000원
입 회 비 : 40,000원
총 계 : 1,226,633,502원

흠커밍데이 협찬 감사합니다

〈일금 10만원〉
△강덕수 GLP⁸ △강석규 공대⁴⁶
△강영규 법대⁴⁸ △강의철 공대⁷³
△고건성 의대⁶⁷ △고상언 AIP¹¹
△고창순 大院⁶⁰ △김경호 AMFR¹⁵
△김광수 공대⁷⁶ △김규복 법대⁶⁹
△김금림 약대⁶² △김낙기 ACAD⁶³
△김대하 공대⁷⁰ △김덕수 공대⁵¹
△김덕진 법대⁷³ △김복순 간호⁵⁵
△김상원 농대⁵² △김성두 상대⁵⁶
△김성수 치대⁶⁷ △김성오 약대⁸¹
△김성중 공대⁵⁹ △김성철 공대⁷³
△김세진 치대⁶⁷ △김승환 상대⁶⁷
△김영근 SGS⁶ △김영일 문리⁶²
△김영주 문리⁷⁰ △김영화 공대⁵⁹
△김용국 사대⁷⁵ △김용표 문리⁶⁸
△김윤수 수의⁷⁴ △김인기 공대⁵⁴
△김중겸 AMP⁶⁴ △김창식 공대⁵³
△김채범 ACPM³ △김현석 문리⁶⁵
△맹기석 공대⁵¹ △박 만 법대⁷⁰
△박 승 상대⁵⁵ △박건우 문리⁶¹
△박남훈 문리⁶⁸ △박사룡 약대⁶⁴

△박수웅 AMP³⁹ △박영대 상대⁵⁶
△박정희 SGS¹³ △박태동 ACAD⁶
△박태훈 공대⁷⁸ △박희욱 의대⁵⁴
△방성호 의대⁶⁶ △배종렬 상대⁶¹
△배준동 인문⁷⁹ △백 철 상대⁵⁶
△변영남 치대⁶³ △변정환 大院⁸¹
△서경석 법대⁶⁷ △서승원 상대⁶³
△서정기 치대⁶⁰ △서정진 법대⁵⁸
△서주성 상대⁴⁴ △설영화 공대⁶⁵
△손무익 공대⁶⁸ △송규정 문리⁶³
△송기덕 공대⁵² △송명호 공대⁵⁹
△송영호 치대⁵⁷ △안덕주 공대⁶¹
△안명숙 미대⁶⁷ △안병만 법대⁶⁰
△양 명 AIP⁹ △양문섭 치대⁷⁸
△양승학 농대⁹¹ △양웅철 공대⁷³
△양일수 치대⁷³ △오성환 공대⁵⁹
△오세인 농대⁵⁵ △오정숙 ACAD⁴³
△원우식 상대⁵² △유도봉 약대⁶⁶
△유영주 생활⁵⁷ △윤순녕 간호⁶⁹
△윤재강 공대⁴⁸ △윤화영 수의⁷⁹
△이대만 AIP²⁴ △이도영 의대⁶³
△이득산 문리⁵⁷ △이상주 공대⁵⁸
△이상호 공대⁶⁶ △이승규 의대⁶⁷

△이영희 공대⁵⁷ △이영훈 공대⁷⁴
△이원도 공대⁵⁹ △이원홍 문리⁵²
△이익효 공대⁵⁹ △이장우 문리⁵⁷
△이정상 상대⁵⁹ △이정수 ACPM²
△이주숙 미대⁷⁰ △이진규 치대⁷⁸
△이철근 공대⁵⁸ △이현범 법대⁷²
△이형도 공대⁶¹ △이환범 공대⁵⁶
△장동원 의대⁷⁰ △장충식 사대⁵²
△정규수 문리⁶³ △정동수 상대⁶³
△정병춘 環院⁷⁸ △정연진 약대⁶⁹
△정종선 치대⁵⁷ △정지석 약대⁶⁰
△정진호 ACAD⁴⁶ △정창생 의대⁶⁶
△정대천 경영⁶⁶ △조성환 AMP⁴⁸
△조인형 AIP¹³ △주종원 공대⁵³
△주진우 문리⁷⁰ △지근진 농대⁵⁸
△진 념 상대⁵⁹ △차수명 법대⁵⁸
△채종향 사대⁴³ △최강호 AMP⁶⁰
△최동훈 공대⁷¹ △최순옥 생활⁶¹
△최주현 경영⁷⁵ △하일부 법대⁵⁷
△한갑현 문리⁵⁴ △한동수 의대⁵⁹
△한상호 GLP⁸ △홍기정 약대⁶⁰
△홍면후 상대⁴⁶ △홍성욱 GLP³
△홍윤기 AIC¹ △홍종률 문리⁵⁹
△홍철근 사대⁷⁰ △황귀봉 FIP¹
△황화자 음대⁶⁰
(10월 20일~11월 19일 협찬자)